

2000年度  
行政監査

#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市民行政委員會會議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被監査部署 保健所・監査擔當官

日 時 2000年 6月29日(木) 10時00分

場 所 市民行政委員會室

(10時00分 監査開始)

○委員長 李憲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 및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장마철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잠시 쉴 틈도 없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구정업무수행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약분업과 관련한 병원파업으로 근 1주일 동안 주민건강과 환자진료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여주신 李星世 保健所長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은 구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는 언제나 구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구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밑거름이 되어줌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를 윤택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담당관은 구민들이 구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업무수행을 바로잡아 구정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하루라는 짧은 시간에 이렇게 중요한 두 부서의 업무전반을 감사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매우 어렵겠지만 그동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님

들이 면밀하고 소상하게 준비하여 연이를 아주 강도있게 심사한 감사와 같이 오늘도 심도깊은 질의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처리가 미진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은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하여 해마다 똑같은 건으로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과 자료요구는 신속하게 제출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증언을 할 수 있게 하고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李星世 保健所長이 대표로 선서를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委員과 關係公務員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起立)

○保健所長 李星世 “宣誓. 본인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

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0年 6月 29日

保 健 所

保 健 所 長 李星世

保健行政課長 李鐘珪

保健指導課長 金相駿

醫 藥 課 長 丁基聲

監査擔當官

監 査 擔 當 官 金周會

○委員長 李憲九 李星世 保健所長!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一同着席)

지금부터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먼저 李星世 保健所長이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고 이어서 金周會 監査擔當官이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李星世 保健所長!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李星世 연일 수고하시는 李憲九 委員長님과 여러 위원님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保健行政課長으로 李鐘珪 課長을 소개해 올립니다.

다음은 保健指導課長인 金相駿 課長을 소개해 올립니다.

다음은 醫藥課長인 丁基聲 課長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李憲九 委員長님! 그리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헌신적인 봉사를 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參照)

2000年度 主要業務推進現況

(保健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李憲九 李星世 保健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周會 監査擔當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擔當官 金周會 안녕하십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시민행정위원회 李憲九 委員長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데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委員長님과 委員님들을 모시고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參照)

2000年度 主要業務推進現況

(監査擔當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李憲九 金周會 監査擔當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할 시간을 20분씩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예, 鄭泰淳委員! 질의하십시오.

○鄭泰淳委員 鄭泰淳委員입니다. 질의에 앞서 그 동안 의약분업 때문에 특히 국민고충도 심한데 우리 종로구 보건소에서 구민을 위해서 비상대기

하고 연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평소에 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보건소를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직접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 약국에서 먹는 약보다 보건소에서 조제해주는 약을 먹으면 효과가 좋다고 평소에 극찬을 하시기 때문에 항상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 의약분업 때문에 보건소에서 겪었던 사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保健所長 李星世**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의 의약분업은 선진국의 OECD에 가입한 나라에서도 지금 실천되지 않은 나라가 되어서 항상 어떤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이런 어떤 대책을 이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약분업에 대한 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사들과 약사를 여러 자문위원들과 협력 위원회의 간담회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문제점을 보완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던 중에 그 의약인들간의 어떤 집단체계가 화합이 안되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가운데 저희가 의료기관의 처방을 수합해서 약국에다가 홍보를 하는 일들, 또 구민들한테 홍보하는 일들 여러 가지의 힘든 일이 많았지만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선진화의 발돋움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의 의약분업이 좀더 보완되고 좀더 문제점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시정해서 좋은 의약분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 또 저희 구청 분들이 수고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걱정을 해주셔서 저희가 잘 의약분업을 지혜롭게 타결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鄭泰淳委員** 이번에 사전에 대비하고 적극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종로구민들한테는 특히 불편이 덜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점검을 하셔서 그러한 사례가 발발할 경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주민의 민원이나 진정이 들어올 경우에 그것을 조사하고 거기에 연루된 당사자한테는 그 내용을 알려줍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예, 알려줍니다.

○**鄭泰淳委員** 혹시 우리 의원들하고 연루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들한테 진정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보여줍니까? 연관이 되어 있다면

○**監査擔當官 金周會** 의원님들이 요청을 하시면 보여줄 수 있는데 관련되었다고 해서 보여드리지는 않습니다.

○**鄭泰淳委員**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監査擔當官 金周會** 해당 부서에서 민원이 접수되면 처리하는 부서로 문서를 분류해서 이첩을 합니다. 그러면 이첩된 기관에서 자체처리를 하고 민원인한테 회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鄭泰淳委員** 자체 부서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업무영역은 어차피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監査擔當官 金周會** 민원을 처리하는 직원의 비리와 관련되는 그런 민원이 있을 경우는 그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감사과에서 직접 조사를 하고 일상적인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일단 관련부서로 이첩을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이원화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鄭泰淳委員** 제가 이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의원이 연루되어 있는 민원이 10월 26일날과 11월 19일날 접수되어서 지금 항간에 안 좋은 소문이 적나라하게 되고 있는데 이것을 경찰하고 검찰에다 사건수사 의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자체 감사과에서도 조사를 했는지 그것을 한번 추후에 확인을 할테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잘되었든 잘못되었든 당사자한테 신속히 보고를 해주든가 아니면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조속히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들어오면 만약에 직원들이 관련되었다고 하면 직원들이 조사합니까? 조사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우리 조사팀에서 업무 전체를 조사하고 지금 다른 것하고 특별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 지금 조사는 감사와 조사의 기법을 함께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鄭泰淳委員 만약에 그런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피해를 보는 사항이 있다면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그 사람한테 통보를 안해주고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 대외적으로 악소문이 나고 할텐데 그런 경우에 그 피해 결과를 우리 주무 담당부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민원이 접수되면 처리를 유한으로, 처리하는 기한을 정해줘서 접수하기 때문에 그 기한까지 처리가 안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 조사합니다. 그 날짜까지 꼭 처리하도록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鄭泰淳委員 당사자는 모르는데 그 공무원이 그런 어떤 민원 진정 들어온 사항도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어서 거꾸로 역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監査擔當官 金周會 글썄, 그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모르겠는데요 혹시 진정을 넣은 분들이 주민한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鄭泰淳委員 그런데 넣은 사람도 익명으로 해서 주소를 확인해봤더니 그 소재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안 좋게 진정을 했는데 보니까 작년 10월 26일하고 11월 19일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근자에는 많은 주민들한테 소문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소문이 자자하게 된 것을 경찰하고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사안이 있으면 어차피 이게 서울시를 통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로 들어온 것 같으면 당사자한테 분명히 먼저 얘기해서 조사를 했으면 아까 암행감사다 그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뒤에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먼저 당사자한테는 먼저 통보를 해줘서 해야 되는데 오랜 시간 지금 6,7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악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監査擔當官 金周會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면 그 처리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鄭委員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鄭泰淳委員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때문에 계속 안하겠는데 이것은 이따가 별도로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鄭泰淳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李東奎委員!

○李東奎委員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를 하겠는데요 감사담당관실 '99년도하고 2000년도 현재까지 외부감사기관에서 시나 감사원 기타 과별, 항목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감받으신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원장을 그대로 갖다주시고 구체적으로 시정내용 같은 것 요구받은 또는 이행내용 같은 것 관련된 서류를 원장 그대로 바로 신속하게 갖다주시고, 그 다음에 '99년도와 2000년도 현재까지 구 자체에서 감사한 기본계획에 의해서 한 과별, 항목별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사실적이라든가 조치한 내용을 원장 그대로 갖다주시고 하나도 손대시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민원이 떨어지잖아요? 각 사안별로 30인 이상 진정 접수된 사유가 어떻게 된 현황인지 또는 직접 조사를 했던가 안했던가에 대해서 관련된 대장하고, 그 다음에 민원처리실적하고 민원심의위원회가 있죠? 민원심의위원회에서 대책회의를 한 기록들을 그대로 갖다주시고, '99년도와 2000년도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위험시설물 있죠? 그런 데에 대한 관리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관리했는가를 '99년도와 2000년 5월 현재까지 속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安載弘委員 議席에서 - 저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00년도 감사기본계획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 팔각정에 대해서 감사한 게 있는데 감사와 관련된 감사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신분상 조치로 10명이 있는데 훈계 1명과 자체시정 9명 그 내용과 여하튼 시설관리공단 감사자료 일체를 봤으면 좋겠어요. 또 보건소 종합감사에 따른 보건소 감사자료 일체를 감사계획서부터 체크리스트,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나 재정상 조치, 행정상 조치를 한 내용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0년 서울시에서 4월 17일부터 29일까지 감

사한 길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렇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까.)

○李東奎委員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양보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종로구 보건소장님에게 묻습니다. 李東奎委員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을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보건소에 자료를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구급차에 대해서 차량일지 적혀있는 것 있죠? 그것을 신속하게 갖다주시고 지금 서부 보건소에 서는 시설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건강체크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해나가고 있죠? 그런데 동부도 그와 거의 같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시설면이라든가

○保健所長 李星世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면이 거의 비슷한데요 우선은 기초검사에 드는 장비들은 미흡하죠. 그래서 일단은 1차 진료기관으로서의 치료 목적보다는 예방 목적으로 모자보건사업이라든가 예방접종, 내과, 한방진료실 협진체제를 유지하는 것에 주력을 두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런데 물론 좋은 생각인데 우리 동부 지역주민들은 서부 지역주민들하고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똑같이 보호를 받을 의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근간에 주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서부지역까지 가기가 그렇다 그러니 보건소 장소가 좁다면 더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라도 좀더 확대해주시기를 바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호응이 좋은 반응이기 때문에 좋다는, 좋은 현상이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구민회관을 건립하고 지금 완공되고 지금의 동부 진료소 쪽에 투자한 금액이 약 실내장식비하고 기타 장비 구입비로 해서 10억원이 넘는 예산편성을 한 일이 있죠? 알고 계십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저희가 장비 일부를 사들인 건데요.

○李東奎委員 그때 장비 살 때 장비 종류가 뭐

가 있었습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장비가 지금 문서로 자세한 것을 제출해드리겠습니다.

○李東奎委員 소장님! 최소한도 새로 신설하는데 장비 들여온 것을 소장님이 모르고 있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서류 갖다주지 말아 보세요. 소장님이 그렇게 업무과약을 그 정도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되다보니까요

○李東奎委員 중요한 것은 알고 계셔야죠. 말씀하세요.

○保健所長 李星世 저희가 기기가 한 15종류의 기기를 샀습니다.

○李東奎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와 같은 장비를 사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 정도입니까? 약 대충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保健所長 李星世 1억 정도

○李東奎委員 1억 정도면 조그마한 장비들이네요. 그렇다고 보죠? 작은 장비들이겠죠?

○保健所長 李星世 제일 고가 장비가 660만원

○李東奎委員 장비 구입에 주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었는데 사실상 동부 진료소 장소도 너무 비좁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그런 얘기는 별로 들어보지 않았습시다.

○李東奎委員 그러니까 그쪽에 관심조차도 없는 거예요.

○保健所長 李星世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李東奎委員 거기에 동부뿐만 아니라 종로구민들이 그 얘기를 다합니다. 동부지역 진료소가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 왜 장비가 들어와서 시설장비가 큰 것이 들어와가지고 너무 보건소하고 같은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장소도 넓히고 그래야 되는데 1층하고 함께 쓰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거기에 큰 장비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제가 거기에 답변을 보완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1차진료기관으로서 주위에 여러 병·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의원과 공조체제를 같이 하면서 저희는 예방 목적으로 하는 그런 진료체제를 유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원래의 목적이. 그래서 이런 어떤 공조체제를 유지하려면 어떤 병·의원에서 하던 여러 가지 2차진료기관에서 손댈 수 있는 그런 것은 저희가 안하겠다 예방 차원에서 하겠다 그런 진료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말이 많죠. 병·의원에서도 거기에 한방과가 또 무슨 동진한의원이 있죠? 아주 말이 많아요. 저희 보건소 때문에 환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다 뺏기고 있다고 이런 말들을 들어요.

○李東奎委員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해주실 때 우리 소장님으로부터 우리 종로가족에게 질 좋은 서비스 그런 것을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속에 다 들어가있는 겁니다.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부분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은 자기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지 몰라도 이것은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보다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지금 시설 가지고는 조금 미약하다고 본다면 앞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라고 답변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얘기 필요 없습니다. 장소가 비좁다면 장소 확장을 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번에 의약분업이 발생되어서 병원 사태가 발생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또는 우리 종로구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 점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종로구에서 발생되었던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우리 종로구에서 발생한 문제점

○保健所長 李星世 저희가 서울대학이 문제가 되었어요. 서울대학이 제일 문제가 된 것이 교수들이 200여 명이 있었는데 이 교수들이 우선 사직

서를 내고 파업을 했었던 경우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료체제로 보완할 수 있나 그래서 여러 가지 약국에다 홍보를 하고 병·의원에다가도 가급적이면 저희가 독려를 했고 저희 보건소에서 24시간 가동을 해서 진료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교수들이 사직서를 냈었던 그때의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는 큰 불편사항이 없었습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큰 불편사항은 없었습니다.

○李東奎委員 의약분업이 일어났을 때 우리 종로의 병·의원들이 문을 닫지 않고 열어났던 곳이 몇 군데나 있었습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열어났던 곳은 한 50개소 정도

○李東奎委員 정확하게 파악한 겁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저희가 독려한 곳이지요.

○李東奎委員 그 관련된 그때 당시의 차트나 이런 것이 혹시 작성되어 있습니까? 관련된 서류가 있으면 주시겠습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그렇게 하죠.

○李東奎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서류를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때 당시하고 그 전부터 보건소를 이용하면서 감기약을 하나 먹어도 보건소 약이 잘 듣는다 이것은 대단히 좋은 평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방향으로 좀더 폭넓게 추진해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병·의원 같은 데에서 상당히 반발이 난다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무서워 가지고 보건소 확장하는 데 또는 확대하는 데 주저하지 마시고 주력을 두시고, 최대한 서부나 동부지역과 똑같은 것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잠시 후에 자료가 오면 별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李東奎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千相旭委員! 질의하십시오.

○千相旭委員 千相旭委員입니다. 먼저 金周會

監査擔當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설명을 들으니까 행정관리국 그 다음에 생활복지국, 종로보건소 네번째인데 자료가 제일 많아요. 한 개 과에 해당되는 부서가 오류 개 과를 관장하고 있는 국보다도 자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자료는 잘했어요. 준비를 잘했는데 위원들이 알아듣기 쉽게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한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대로라면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다, 우리 종로구민들이 감사실만 믿고도 편안하게 구정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놓고 지켜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료 내용을 보면 정말 상세한 데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추진이 되고 있는 실정이 나와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어떤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전문 분야지만 공원관리를 하는데 식수를 하고 현장을 가봅니다. 소나무 같은 것은 상당히 비싸거든요. 소나무가 비싼데 소나무 진이 나오으로써, 소나무에 치명적인 것이 곰팡입니다. 소나무에 곰팡이가 피면 그 소나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곰팡이가 하얗게 피어있습니다. 진이 없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기거든요. 당초에 병든 소나무를 옮긴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달래라든가 꽃나무 같은 것을 심어놨는데 그것도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살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하십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감사를 하는 것은 일상감사를 주로 했고 지난 4월달에 서울시에서 천만그루심기운동 추진사항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때 점검 지적사항이 지금 千相旭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인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묘목을 심을 때도 규격에 미달되는 나무를 심은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을 해당과에다 시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

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위원님 지적한 사항은 저도 동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千相旭委員 그런데 그것이 보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거기에 보면 사후 하자보수 기간에 있는 것은 보수를 전부 하도록 했습니다.

○千相旭委員 보식입니다. 죽은 나무는 뽑아내고 새로 심는 것. 새로 추가예산은 안 들지

○監査擔當官 金周會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다시 나무를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은 이미 준공이 되면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千相旭委員 구정 전반적인 것을 적은 인력을 가지고 감사를 하시다보면 인력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말이죠 해당과에 대해서도 물론 상당히 비판을 하지만 특히 감사기능이 없다 하는 이러한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공원녹지과의 감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10번 했던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미흡한 부분이 적발이 되니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또 건축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죠? 건축허가 분야에 대해서 요즘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안 사항인데 문화재 건축심의라는 게 없어졌다고 그래요. 알고 계십니까? 건축심의할 때 문화재 분야에 문화재에 인접해있는 지역은 말이죠 문화재 심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監査擔當官 金周會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그리고 양각심의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입법예고된 사실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99년도 5월경에 그것이 문화재 양각심의도 폐지되고 문화재 주변에 대한 문화재 심의가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문화재 주변도 일반 심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한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왜 그러느냐면 건축심의를 있는데 건축심의를 있고 건축심의를 대한 감사가 또 있는데 안국동에 공덕귀가가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곳이 아흔아홉 칸으로 되어 있는 아주 잘된 한옥입니다. 보존한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경계선에서,

바로 경계선입니다. 벗어나지 않고 딱 바로 붙어 있는데 4층 건물로 허가가 난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 쪽은 건축허가가 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은 안했고 2층까지는 건축허가가 날 수 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4층이 허가가 나서 문제가 된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신 적이 있어요?

○監査擔當官 金周會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직접 감사하지 않고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저도 간접적으로 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지금 千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법에 적합한 허가를 득했다고 그래서 지금 구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에서는 적법한 절차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난 것은 본인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왜 적법한 것이 문제냐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내준다고 하면 건축심의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건축심의를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이 그 범으로는 허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 종로는 특히 고도의 600년 역사가 면면히 흐르고 있는 지역이 아닙니까? 그 역사성에 의해서, 그곳이 건축허가를 해줘도 되느냐 안되느냐 그러한 부분을 심의하는 겁니다. 인접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느냐 안가느냐, 공공건물에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등등을 검토하고 건축심의도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심의하지 않고 적법하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할 것 같으면 건축심의가 필요 없자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까? 바로 감사담당관들이 하실 일이 그것입니다. 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심의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부분을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감사를 해서 가지고 공덕귀가 주변에 건물 한 채입니다. 완전히 공덕귀가를 버려놨습니다. 감사를 해서 가지고 공덕귀가 쪽에 있는 창은 전부다 폐쇄해야 되고 말이죠 층수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다시 실시해서 건축심의 과정이 잘

못되었다는 겁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내준다고 하면 그 공무원은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공무원은 처벌해야 되고 감사담당관이 처벌을 해야 돼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하는 물음에 대해서 공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평가를 하십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지금 문화재 주변에 대해서 훼손하는 것은 당연히 법을 떠나서 자체적으로 조정 통제하는 것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건축심의를 했으니까 허가가 난 거죠.

○監査擔當官 金周會 해서 나갔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감사과 입장에서는

○千相旭委員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감사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 건축심의를 할 때 건축과에 허가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위에 계장이 있을 것이고 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건축심의위원회에 가서 심의할 때 참석합니다. 참석해서 심의위원들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느냐고 물었을 때 그러면 주변도면이 나온다고 말입니다. 공덕귀가가 분명히 나오니까. 장님 심의위원이 아니고는 보면 알아요. 공덕귀가하고의 연관성을 물어본다고요. 그럴 때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가 난 거예요. 법으로는 하자가 없더라도 이것은 중요한 문화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층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했더라면 4층 허가가 안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안 했다 이런 얘기에요. 직무를 유기한 거예요. 담당직원이. 그것을 감사해서 처벌하라 그런 얘기에요. 못 알아 들으시겠어요? 그래도?

○監査擔當官 金周會 그 사항은 재량에 관한 사항 같습니다. 와서 보니까 감사는 주로 합법성 위주로 감사를 하는데 법에 벗어나서 재량권에 관

한 사항을 감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사실 감사부서에서 통제하는 것보다 심의위원회라든지 그 위원들이 통제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千相旭委員 물론 감사담당관들이 법에 벗어난 것을 재량권 행사를 못한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무원들이 건축심의위원회들에게 설명을 잘못했다 이겁니다. 그 부분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냐 그것입니다. 직무유기 부분을 감사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담당공무원을 불러 가지고 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심의위원이 심의할 때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기록을 보라 이겁니다. 답변을 잘못했으면 그 직원이 잘못된 거죠. 분명히 도면에 주변도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 심의할 때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은 중요한 문화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양각심의가 없어졌습니다. 문화재심의도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적법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문화재는 다 훼손된다 이겁니다. 독립문 옆에다 집을 지어도 말을 못해요. 개인 땅만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교육을 시켜야 될 의무도 있고 감사를 통해서 공무원 재량권 남용을 막아라 이겁니다. 재량권 얘기 잘하셨어요. 재량권 남용이에요. 그거 그리고 공무원들이 지적 수준이 함량부족이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공덕귀가 쪽에 나 있는 창은 전부 폐쇄시켜야 됩니다. 몽땅 폐쇄시켜서 문화재를 보존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요.

○監査擔當官 金周會 잘 알겠습니다.

○千相旭委員 그 다음에 우리 安載弘委員께서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북악스카이웨이 관계는 安載弘委員에게 질문권을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에게 질문하겠는데 보건소장께서는 질 좋은 서비스를 잘 하시기는 하는데 형평성을 잇은 것 같아요. 잘하는 지역은 잘하고 있고 전혀 서비스가 없는 데는 전혀 없어요.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 207

쪽을 한번 봐주세요. 두꺼운 자료에 동별 방역횟수 현황, 보고 계세요?

○保健所長 李星世 예, 그렇습니다.

○千相旭委員 보시면 어떤 동은 2번밖에 방역을 안 했고 어떤 동은 무려 74회를 했습니다. 그 횟수 맞죠? 살균제 횟수. 왜 이렇게 했습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이 방역소독은 주로 하절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 취약한 지역이라든지 홍제천 주변, 평창, 부암 같이 숲이 많이 우거진 지역에다가 주로 소독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千相旭委員 동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는데 자료를 보시면 알 거예요. 홍제천 주변이 아닌데도 74회를 한 것이 있습니다.

○保健所長 李星世 이것은 숲이 많이 우거진 지역을 선택했거든요. 저희가

○千相旭委員 숲이 많이 우거진 지역은 저희 삼청동이 제일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두 번밖에 안 했습니다.

○保健所長 李星世 부암동, 평창동 그쪽에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취약한 지역이라든지 또 숲이 우거진 지역이라든지 주로 이런 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千相旭委員 얘기가 안됩니다. 2번 한 데가 말입니다. 효자동 2번 했고 우리 위원장 지역인데, 평창동이 숲이 가장 많습니다. 7번밖에 안 했어요. 가회동 2번, 삼청동 2번, 5,6가동 2번, 이화동 2번, 혜화동 2번, 명륜동도 2번입니다. 그리고 그 외 동부지역은 아주 실적이 좋아요. 74회, 45회, 16회가 제일 적습니다. 교남동도 47회를 했고 부암동 74회 이렇게 청운동은 14회를 했습니다. 왜 이것을 본 위원이 질문하느냐 하면 형평성에 도저히 맞지 않고 현재 새마을지도자들이 활발하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같이 따라다녀 봤는데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용량이 적어서 말이죠. 소리만 요란하고 방역도 제대로 되지 않고 아무 실효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독성을 전부다 마셔야 되고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메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말입니다

다. 그러면 옷에 약이 묻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정도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기침을 하게 되면 입에서도 냄새가 쏟아져 나오구요. 그리고 약의 용량이 적기 때문에 금방 떨어져 버려요. 또 다시 약을 기름하고 배합을 해서 가동을 시킬 때 잘못하면 불이 납니다. 한 사람은 방역소독기를 들고 다니고 또 한 사람은 소화기를 들고 다녀야 해요. 불이 나면 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스럽게 해서 실효가 있느냐 하면 실효가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나오는 방역소독차는 한번 지나가면 동네가 하얗게 덮여집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가 한 것은 고생만 많이 하고 아무 실효도 없고 돈만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저는 삼청동에 하도 안 오니까 다 그런 가보다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74회를 한 곳이 있는가 하면 2회를 한 곳이 있고 이것은 너무 잘못된 거다 이겁니다. 보건소장님! 어떻게 동장이나 지역의원님들 중에 친한 분 있는 곳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保健所長 李星世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207쪽에 나온 것은 자율방역반에 약품을 배부한 내역입니다. 약품배부내역입니다.

○千相旭委員 동별 방역횟수 각 동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保健所長 李星世 약품배부내역입니다.

○千相旭委員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방역현황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保健所長 李星世 소독실적은 분무살충 여기에 m<sup>2</sup>로 해서 면적이 나와 있죠. 면적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면적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횟수가 20회가 있고 15회가 있고 2회가 있고 마찬가지로 비슷한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면적도 보면 17만 5,000m<sup>2</sup>가 있는가 하면 2,500m<sup>2</sup>도 있습니다. 결국은 마찬가지로입니다. 결국은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나 저거나 따지고 보면 똑같은 내용에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이쪽의 약품배부내역과 비슷합니다. 약품배부는 그러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누구한테 배부를 했어요? 이 약품을?

○保健所長 李星世 약품내역인데 자율방역반들이 적극적으로 약품을 달라고 하는 원함이 있어서 배부가 된 양입니다.

○千相旭委員 그런데 묘하게도 홍제천 주변하고 동부지역 주변하고 말입니다. 방역소독 실적의 면적이 비슷하고 횟수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을 편애하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소장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保健所長 李星世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방역반들이 취약한 부분들이 많은 것을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는 동들은 약품을 상당히 많이 원해서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로 취약한 지역의 8개 동 25개 통, 창신 1,2,3동, 송인 1,2동, 무악동, 종로 1,2,3,4가동, 부암동 이런 순으로 해서 저희가 전 지역에

○千相旭委員 李星世 所長님! 위원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시정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야지 자꾸 변명만 하십니까?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변명하지 마시고 문제를 구체적인 개선책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방역소독차량이 1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保健行政課長 李鐘珪 3대입니다.

○千相旭委員 자료에는 1대밖에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保健所長 李星世 아니에요. 여러 가지 분무, 연막소독기 8대가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자료가 제출된 곳이 어디입니까? 몇 쪽입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방역장비가 차량용 연막기가 1대 휴대용 연막기가 6대, 동력분무기가 4대

○千相旭委員 그러니까 차량을 얘기한 거예요. 차량연막기는 1대밖에 없죠? 1대 가지고 어떻게 종로 전체를 커버합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저희가 요즘에 공해와 동시에 오존층이 발생하고 이래 가지고

○千相旭委員 몇 쪽에 나와있죠? 자료가

○保健所長 李星世 자료가 3쪽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2000년도 추진현황에 있어서 3쪽이

되겠습니다.

○千相旭委員 그래 1대로 봤어요. 1대로 봤는데 차량연막기가 1대인데 이 1대 가지고는 안된다 이겁니다.

○保健所長 李星世 그리고 자율방역반에 또 2대가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그것은 하나하나입니다. 실효가 없고 차량연막소독기가 지나가야만 제대로 소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나가면 전체를 하얗게 덮습니다. 그런 차가 1대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맞습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그렇습니다. 1대입니다. 연막기는요.

○千相旭委員 최소한 종로를 소독하려면 3대는 있어야 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무사안일하게 1대만 놓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차를 사달라고 해야죠. 정원도 늘리고 해서 전 종로가 말입니다. 아까는 업무보고를 근사하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씀은 해놓고 전혀 안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하절기 파리, 모기 이런 해충에 대한 공해로부터 벗어나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 전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들을 그렇게 고생을 시켜가면서 말입니다. 아무 실효도 없는, 사람은 죽을 고생을 하고 화재의 위험으로 생명까지 담보로 해서 고생해도 아무런 실효가 없어, 그분들이 하는 일은 차가 들어가지 않는 곳, 골목같은 곳, 재래식 화장실 같은 곳을 소독하는 것으로 임무가 끝납니다. 대로변은 그분들이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해요. 고생만 시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담당하라 이겁니다. 앞으로 증차를 2대 더 시켜달라고 해서 말이죠. 동부, 서부, 중부를 골고루 소독해 달라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당장 이것을 요청하세요.

○保健所長 李星世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시 방침이 공해를 가중시킨다고 해서 연막소독을 축소시키고 제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막을 점차적

으로 축소시키면서 살충, 분무 소독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홍제천 주변같은 데를 보면 터널 밑이라든지 이렇게 모기가 많이 모여드는 그런 장소에다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유도등을 달아서 모기채집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모기살포제를 분무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지 지금 연막소독을 제어하고 축소하는 그런 서울시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막은 조금 축소하고 분무는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千相旭委員 서울시 방침도 잘못된 건 따르지 말아야죠. 지금 우리 李星世 保健所長이 설명한 내용은 말입니다. 종로가 아닌 중구에는 해당이 됩니다. 중구에는 숲이 비교적 적고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연막소독을 하게 되면 공해일 수도 있습니다.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그래서 이 연막을 하더라도 햇볕이 나기 전에 하게 되면 공해가 없다고 했어요. 새벽5시 전에 한다든가 저녁 일몰 이후에 하면

○保健所長 李星世 예, 일몰 후나 일출 전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그때는 별로 공해가 없습니다. 햇볕이 난 상태에서 소독을 하니까 공해가 있는 겁니다. 서울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따릅니까? 그리고 종로는 숲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소독을 해야 됩니다. 파리나 모기를 제압하려면 소독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의 잘못된 방침을 따르지 마시고요. 종로는 종로답게 보건행정을 시행해 나가야지 서울시의 말을 들으면 종로사람들 다 죽습니다. 아시겠습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예, 참조하겠습니다.

○千相旭委員 그래서 차를 2대 더 증차시켜서 각 동부, 서부, 중부를 골고루 소독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당장 예산신청을 하세요. 금년 예산편성 때 저희들이 반영을 시킬 테니까요. 정원도 우리가 2명 더 늘려드리고 할 테니까 그렇게 요청을 하세요. 가만히 앉아 계시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동부 보건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부러웠습니다. 면적이 좁다 넓다 그것은 행복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봅시다. 감기예방접종을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211쪽을 보시면 청운, 효자, 사직 거기는 감기예방접종을 약 1,000명 이상 했습니다. 무려 효자동 위원장 지역에는 2,496명이 감기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분소가 있는 동부 지역 창신2,3동, 송인 1동은 말입니다. 무려 1,300명, 1,000명 이상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 외 보건소가 먼 곳은 어떤 데는 97명, 백 몇 십 명, 이 백 몇 십 명 이 정도로 저조합니다. 독감예방접종 실적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洪起瑞 運營委員長님께서 늘 관심을 가지시고 중부에도 보건분소 하나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늘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가 원거리 지역에는 저희가 일정별로 취약한 지역, 감염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연령 분에 대해서는 나가서 접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명륜동도 그런 예가 되겠는데 저희가 그런 곳을 수시로 방문하고 또 보건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을 일정별로 해서 자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그런데 독감이라는 것은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것인데 독감예방접종이 잘된 지역의 주민들은 행복하고 부럽고 안되는 지역의 주민들도 하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제약을 받고 교통편의도 문제가 되어서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는 가장 관심이 많으신 우리 洪起瑞 運營委員長님께 질문권을 넘겨드리고 본 위원의 질문은 일단 오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수고하셨습니다. 保健所長님!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연막소독이 과연 효과가 있습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효과 면으로 봐도 상당히 분석을 해보니까 떨어진다고 합니다. 오히려 공해 유발을 하면서

○**委員長 李憲九** 지금 千相旭委員님의 질문에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연막차량이 모자라면 더 증차시켜달라고 해서 하지 왜 그러냐고 했는데 분명히 李所長님은 제가 1기 구의원 때 이것을 질의했습니다. 연막소독이 과연 돈 드는 것만큼 효과가 있느냐 했을 때 없다고 했습니다.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효과가 별로 없다고 했어요. 연막소독은 진짜 효과가 없습니다. 모기, 파리 안 죽습니다. 그러면 뭘 하느냐 아까 분무살충이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까 千相旭委員님이 연막차량 1대 갖고 어떻게 종로 전 지역을 커버를 할 수 있느냐고 했는데 물론 많이 한 곳은 20번도 하고 우리 같은 곳은 2번 해서 저도 이것에 대해선 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약품배부에 있어서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자기가 타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은 덜 타서 했을 것이고 저희 동네를 살찌우기 위해서는 많이 타다가 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연막소독은 그래도 거의 평균적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것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연막소독 자체가 사실상 기록에 보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거의 안 하려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千相旭委員! 질의하십시오.

○**千相旭委員** 잠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과학적으로 그것이 입증되었습니까? 연막소독이 공해만 유발하고 실질적으로 병충해 예방에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과학적으로 아마 약품별 분석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은 거의 연막소독을 하지 않죠.

○**千相旭委員**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들에게 그 약품 배부를 왜 합니까? 중지해야지요.

○**保健所長 李星世** 아니, 그러니까 중요하게 정

말 모기가 집중적으로 많다든가 이런 때는 강도 있게 해보는 어떤 가시적인 효과죠.

○千相旭委員 약품이 참 독하더라고요. 그래서 디젤유하고 혼합할 때 약품을 조금 늦게 넣으면 독성이 엄청나게 나서 인체에 침투해서 목욕을 매일같이 해도 제거가 안됩니다.

○保健所長 李星世 환경유발도 되죠.

○千相旭委員 그렇다면 우리 새마을지도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그분의 몸 건강을 위해서도 약품배부를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신데 요즘에 자꾸 대두되고 있는 환경호르몬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약품으로 유발되는 부작용들이 상당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런 연막소독제들이 어떤 식물이라든가 사람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들이 있을 거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제어하는 그런 측면에서 분무소독을 더 강화하는 그런 소독방법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千相旭委員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건소가 중대한 우리 종로구민의 생명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연막소독이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즉시 중단해야 되고 특히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의 건강을 지켜줘야 되는 보건소에서 계속해서 약 배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세요.

○保健所長 李星世 전혀 효과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부분의 집중적인 강도로 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千相旭委員 효과가 적은 것에 비해서 그만큼 종로구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행위를 왜 하느냐 그겁니다.

○保健行政課長 李鐘珽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약품을 나눠드리는데 연막용만 나눠드리는 게 아니고 분무용하고 3가지를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연막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는 것뿐이지 전혀 효과가 없

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햇볕하고 만났을 때는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것을 억제하는 것뿐이지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절기 7월부터 9월까지의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6월 15일에 시작해서 9월 말까지는 각 동에 일주일에 한번씩은 하도록 계획을 짜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주로 새마을지도자들이 작업을 하는 것을 보면 새벽에는 안합니다. 거의 99%는 새벽에 안합니다. 주로 오후에 하는데 일몰 이후에 하는데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4시쯤 준비를 한다고요. 약품을 그때 혼합을 합니다. 그때는 아직 일몰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공해를 약품에 대한 냄새를 흡수하면서 배합을 한다구요. 그래서 해가 미쳐지기 전에 일할 곳은 범위가 넓고 마음이 급하니까 벌써 출발을 합니다. 저도 같이 해봤어요. 일몰 전에 벌써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당장 곁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효과도 없는 것을 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의 효과를 위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왜 하느냐 이겁니다.

○保健行政課長 李鐘珽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발대식 할 때 저도 가서 봤는데 그분들이 약품 배합하는 것도 모르고 3가지 약품을 나눠주니까 3가지 약품을 섞어 가지고 하기도 하고 전혀 그것을 모르시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것은 저희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千相旭委員 그것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일몰 후에 또 일출 전에 연막소독을 하게 되면 중대한 암 발생요인이 생길 수 있으니까 각별히 유의하라는 공문을 각 새마을협의회에다 보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연막소독용 약품은 배부를 중단해야 됩니다. 효과가 떨어지면 중단해야죠. 조그만 벌레 하나를 잡기 위해서 사람 생명을 잡아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

하는데 이것은 심각하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그 지시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왜 이 지시가 내려왔는지, 저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이 일몰 후와 일출 전에 하면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태양과 마찰될 때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다면, 인체에는 아무런 해가 없더라도 효과가 없다면 하지 말아야죠. 효과에 대한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든가 아니면 정부에 물어보든가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연막소독을 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을 해서 통보해 주세요. 所長님! 아시겠습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알겠습니다.

○千相旭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朴鍾植委員! 질의하십시오.

○朴鍾植委員 朴鍾植委員입니다. 지금 千相旭委員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측에다가 본 위원이 재작년에 요구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소독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의원들한테 전부 배부를 했었습니다. 금년에도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안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계획서를 보내라고 보건소에다 전화를 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保健行政課長 李鐘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전화를 직접 받아 가지고서 저희들이 다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朴鍾植委員 안 왔어요.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확인도 안하고 있는 겁니까?

○保健行政課長 李鐘珽 받으신 분들이 많으시던데

○朴鍾植委員 받으신 위원들 계세요? 소독하는 계획서

(「한번 온 것 같은데」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그것은 놔두고, 소독실적에 보면 연막살충 117회라고 '99년도에 117번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부락은 2번밖에 안하고 어떤

부락은 20번 했는데 이 소독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합니까? 동사무소의 요구에 따라서 합니까? 아니면 무슨 계획을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소독해야 되겠다는 데를 찾아다니면서 합니까?

○保健行政課長 李鐘珽 거기에 대해서 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7월 1일부터 연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분무소독을 취약지역만 했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12회를 나가고 있거든요. 각 동별로. 그런데 여기에 117회 나간 것은 지난번에 나방이 생겨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간 겁니다.

○朴鍾植委員 그러면 나방이라는 것은 綠陰 芳草 수풀이 많은 지역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5·6가는 수풀이 많은 지역이 아니에요. 노점상은 많지만, 수풀이 많지 않은 지역은 20번을 하고 수풀이 많은 지역은 1년에 12번밖에 안하고 이래도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된 겁니까? 그리고 5·6가에 비해서 이화동은 엄청나게 취약지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5·6가는 20번을 했는데 이화동은 12번밖에 안했어요. 그것까지도 좋은데 모 의원이 소독하러 나온 차를 타고 다니면서 내가 특별히 구청장이나 보건소장한테 얘기해서 차를 불러가지고 소독하는 것처럼 홍보를 하고 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웃에 있는 구의원들은 고달프다는 겁니다. 1년에 한번을 해도 좋으니 5·6가에 한번 하면 우리 이화동도 한번 하라는 얘기에요. 의원이 타고 다니는 것은 그 의원 마음에 달려있는 거고 타고 다니면서 안내를 하면 좋은데 내려와 가지고 구청장이나 보건소에 특별히 얘기해서 차를 불러가지고 해주고 다니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다니니까 이웃 동네인 우리 동네는 왜 '이화동 의원님은 소독 안해줍니까? 3선 의원이라 그런 것 안합니까?'. 이런 항의를 받고 있어요. 내가 다음에 朴鍾植이 구의원 떨어지면 책임지렵니까? 보건소에서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공정하게 하라는 겁니다. 어느 동네는 2번을 하고 어느 동네는 20번을 하냐는 거예요.

○保健行政課長 李鐘珪 여기에 있는 실적은 새마을봉사대에서 한 실적입니다.

○朴鍾植委員 이것은 보건소에서 한 실적이지 왜 새마을에서 했다는 말입니까? 117번은 보건소에서 나온 거예요. 답변을 하는 사람이 그 내용도 모르고 답변을 하고 말아야

○保健行政課長 李鐘珪 이것은 새마을봉사대에 약품을 나눠드린 거고 그 사람들이 소독한 실적입니다.

○朴鍾植委員 소독실적이 117회 이것이 보건소에서 한 것이지 왜 새마을지도자들이 한 것이 데이터가 따로 나와있어요. 지금 수감을 받는 태도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직원들이 대답하는 게 아무 근거도 없는 걸 가지고. 127번 소독실적이라고 하면 보건소에서 한 소독실적을 말한 것이지 왜 어떻게 새마을지도자가 한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엄중하게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憲九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朴鍾植委員 그리고 소장님께 부탁드립니다마는 나방이 나와도 숲이 많은 지대에 5·6가동이 나왔으면 이화동도 나오고 명륜동도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회동같이 숲이 많은 지역에도 2번밖에 안하고 5·6가동에는 나무가 없고 노점상만 있는 데는 20번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래도 이게 나무 많은 지역을 찾아서 한 겁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저희가 이것을 소독을 하고 약을 쳤을 때는 민원이 있었습니니다. 그래서

○朴鍾植委員 그러면 민원이 있으면 하는 거죠?\*

○保健所長 李星世 아니죠. 주로 민원이나 어떤 제보를 받고 저희가 갔던 이런 실적도 있을 겁니다.

○朴鍾植委員 민원이 있어서 했다면 5·6가동에서 20번이나 해달라고 계속 민원이 제기된 거란 말이에요? 다른 데는 다 2번씩인데 여기는 민원이 있어서 18번을 더 했다는 거죠? 그러면 민원누가 요구한 겁니까? 구의원이 요구한 겁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아니죠. 구민의 민원이

○朴鍾植委員 구의원이 제 입으로 하고 다녀요. 자기가 구청장한테 특별히 얘기하고 보건소 소장에게 특별히 얘기해서 차 불러가지고 소독해주고 다닌다고 제 입으로 얘기하고 다닌다는 말입니다. 내가 동료의원인데 오죽 화가 나면 감사장에서 이런 소리를 하겠어요? 아까 千相旭委員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211페이지 데이터를 보면 서부와 동부를 제외한 중부에는 보건소가 된지도 모르는 주민들이 80~90%입니다. 이게 세종로동 97명, 3·4가동이 125명인데 125명이라는 것은 주민의 몇 분의 1입니까? 보건소의 혜택을 전혀 모르고 살고 있어요. 중부지역은. 그러니까 중부지역에 청장님하고 의논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 할 것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보건진료소를 한 군데 더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세요.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저도 회의 때 얘기한 바 있는데 데이터를 봐도 종로 중부 사람들은 보건소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예요. 거기에 나와있잖아요? 어떻게 똑같이 세금 내고 사는데 어떻게 한 지역은 혜택을 받고 한 지역은 혜택을 못받고 그래야 됩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것이 편파적이에요. 방역부터 예방접종까지 모든 게 편파적이에요. 철저하게 편파성을 배제하고 종로 구민이 고루 균등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부 지역에도 보건진료소를 하나 만들도록 정식으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우리 의회에서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청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내년에는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방역 문제는 의원들한테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 지역에 골고루 하는 방식으로, 저는 창신동 얘기는 안합니다. 창신동 쪽은 우리 이화동 쪽보다 더 취약지역이고 공사관계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창신동 쪽 얘기는 안해요. 5·6가동보다는 취약 지구가 많고 숲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5·6가는 20번씩 하고 이화동은 12번밖에 안해준 데다 구의원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생색을 내니까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차를 타고 다니는 것까지는 자기 개인이 하는 거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함

니다마는 소독은 1년에 한번을 해도 좋으니까 5  
•6가동 한 번하면 이화동도 한 번 하라는 얘기에  
요. 알겠습니까?

○保健行政課長 李鐘珩 알겠습니다.

○朴鍾植委員 약속하죠?

○保健行政課長 李鐘珩 예.

○朴鍾植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李憲九 예, 洪起瑞委員! 말씀하십시오.

○洪起瑞委員 洪起瑞委員입니다. 보충질의를 하  
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수감을 받는 태도가  
아주 굉장히 불성실하고 여기 나온 자료를 보면  
자료가 이게 엉터리 자료입니다. 그러면 1년 내  
내 새마을방역봉사대에서 2번밖에 안했다는 얘깁  
니까?

○保健行政課長 李鐘珩 연막을

○洪起瑞委員 살충이라고 나와있잖아요? 우측  
에 보면 약품배분 내역이 있고 이쪽에 보면 소독  
실적이 나와있잖아요? 실적이 나와있는데 청운  
동도 연간 2번밖에 안했고 5•6가도 20번, 이화동  
12번 나와있는데

○保健行政課長 李鐘珩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  
다. 분무 약품

○洪起瑞委員 이것은 연막살충이 아닙니까?

○保健行政課長 李鐘珩 그러니까 연막만 2번을  
했다는 얘깁니다.

○洪起瑞委員 연막은 1년에 2번밖에 안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엉터리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1주일에 2번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연간 2번  
했다고 하는 이런 자료를 의원들한테 내놓으면 말  
이 되는 소리냐는 얘기예요. 우리 구의원들이 한  
것도 1주일에 2번이 돼요. 千相旭委員님같이 연  
세가 많으신 분도 지도자하고 같이 할 때 1주일에  
2번씩 나가서 하는데 연간 2번이라는 게 말이 되  
냐는 소리죠. 그리고 연막소독을 하는 것이 효과  
가 없고 인체에 해롭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이걸  
보건소에서 합니까? 이걸 없애야죠. 수해가 나  
게 되면 전국적으로 각 지역에서 나가서 봉사를  
해달라는데 그러면 수해민들을 죽이려고 하는 겁

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회 감사장입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을 기해야지 어떻게 보건소  
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 연막은 아무 소용이 없  
고 실효가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보  
사부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사부 정책  
이 잘못되었죠. 왜 그러냐면 수해가 났을 때 전  
국에서 다 가서 연막소독도 해주고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수해가 난 사람들에 아예 죽으라  
고 하는 거예요? 인체에 해로우면.

○保健所長 李星世 위원님 말씀도 되겠죠. 그런  
데 이것은 특별한 상황이라든가 전염병이 발생하  
시기에는 하계끔 되어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실효가 없는데 왜 해요? 소장님  
이 아까 이걸 해봐야 실효가 없다면서요?

○保健所長 李星世 실효가 없지만 어떤 강도나  
특별한 전염병이 많은 시기라든지 이런 때는 그래  
도 어떤 효과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분무와 같이  
합니다.

○洪起瑞委員 연막이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은  
분명히 위원장께서 말씀했을 때 이것은 효과가 없  
다고 말씀을 했어요. 효과가 없다, 모기가 죽지  
않는다, 병충이 죽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구요. 그  
러면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 아닙니까? 뿌려서  
하는 것으로만 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 아  
니예요?

○保健所長 李星世 점차적으로 축소

○洪起瑞委員 아니죠. 그런 답변이 없고 이게  
효과가 있냐 없냐 이것을 확실하게 답변하시라고.  
방역을 해가지고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실하  
게 답변을 해줘요.

○保健所長 李星世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  
겠습니다.

○洪起瑞委員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답변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수  
해가 나고 이랬을 때는 각 지역에서 나가서 그 지  
역에 방역을 해줍니다. 병충해 예방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수재민들은 손해를 겪은 사람들  
한테 그 분들을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소  
장님 말씀따라나 예를 들어서 효과가 없는 것을

뿌리고 다닌다면 인체에 해로운 것을, 저도 분무기를 메어봤습니다마는 이게 끝나고 나면 목욕을 하고 나도 냄새가 나서 식당을 못 들어오게 해요. 목욕을 하고 들어간 식당에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약품 독한 것을 먹어가면서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없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효과가 없으면 분명히 구민들한테 밝히세요. 이것은 방역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못한다는 것을 밝히려는 거예요. 왜 국민을 기만해요? 왜 우리 지도자들이 그 피담 흘리고 하는데 의회 감사장에 와서 효과 없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保健所長 李星世**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황이 60년대, 70년대는 전염병이 아주 만연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개선됨으로 인해서 이런 연막의 독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게 점차적으로 제어되고 축소되고 이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앞으로 아주 특별한 상황이 있기 전에는 연막을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또 그러한 집중적인 분무소독으로써 방역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서울시의 방침에서도 나와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기 전에는 그런 것을 구민들한테 홍보를 해주면서 점차적으로 줄이면서 분무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洪起瑞委員** 특별한 상황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전염병이 발생했다든가

**○洪起瑞委員** 전염병이 발생했는데 효과 없는 것을 왜 해요? 전시행정이지

**○保健所長 李星世** 그런데 분무소독과 같이 했을 때는 상승작용을 하기 때문에 전혀 효과가 없다는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인체에도 해롭고 여러 가지 독성이 어떤 효과적인 측면에서 떨어진다는 거죠.

**○洪起瑞委員** 그런 답변을 무책임한 답변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나도 옛그제인가 서울신문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무공

해 방역약품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데라콤투인가 뭔가 약품을 개발해서 지금 현재 그것으로 서울시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건에 책임을 지고 있는 그 長께서 이러한 것들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연막에는 환경에 오염을 초래해서 약간의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개발한 데라콤투 같은 것으로 하게 되면 주민들의 건강도 해치지 않고 파리, 모기나 이런 것들을 죽일 수 있는 이런 약품이 있다는 것을 답변을 해줘야지 연막을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고 효과가 없다, 그러면 우리 지도자들은 무엇 때문에 땀흘려가면서 지금까지 고생을 했느냐는 거예요.

**○保健所長 李星世**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인체에 해롭지 않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어떤 성충을, 모기가 성충이 되기 이전의 유충 때에 잡아내는 박토셀이라는 약품이 바로 그런 약품인데 인체에 해롭지도 않고 아주 강도가 있는 그런 소독제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살포를 했습니다. 홍제천 주변이라든가 기타 지역 등지에 여러 곳에도 살포를 하고 앞으로도 그런 어떤 과학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약품을 가지고 소독을 할 계획입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새마을지도자들 방역봉사하는 사람들도 그 약품으로 대체를 해서 지급을 하겠다는 답변을 해야지 연막소독기로 해가지고 필요가 없는 걸 한다고 그러면 1천 여 새마을지도자들이 매일 아침마다 고생을 한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분개하고 흥분하느냐는 얘기에요. 주민들이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공해를 유발해가면서 남의 가정에 약 뿌려가지고 주민 인체에 해로운 것을 했다는 얘기에요? 어떤 답변 하나하나가 신중히 고려해야 되고 이 문제점을 개선해야지 이걸 어디까지나 감사장인데 그래도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께서 그런 답변을 하면 되겠어요?

**○委員長 李憲九** 그 정도 하십시오. 소장님!

연막살충 자동차로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부각을 시켰어야죠. 이쪽은 바람에 날아가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지양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겠고, 다만 여기 연막살충을 어떤 데는 20번을 살충했는데 여기는 2번밖에 안했다는 것은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만약에 자료가 잘되어 있다면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평균적으로 똑같이 해줘야죠. 이게 자료가 됩니까? 또 하나 여기 예방접종 아까 우리 千相旭委員께서 감기는 모든 병의 근원이 된다고 했는데 참 좋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효자동은 보건소 근처에 있으니가 제일 숫자가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창신동도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해서 기왕이면 그 동네에 가서 사직동이면 사직동 동사무소에 가서 하루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평균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맨 마지막에 기타 1,363건 이것은 제가 보기에 작년에는 보니까 전경들도 오고 이렇게 관공서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별도로 서울시에 예산 배정을 받아가지고 하고 기타 1,300은 주민들에게 나눠주세요.

○**保健所長 李星世** 예, 그것은 내소자라든지

○**委員長 李憲九**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서 해주십시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安載弘委員!** 질의하십시오.

○**安載弘委員** **安載弘委員**입니다. 이번에 의료시설 파업으로 인해서 근 1주일동안 고생을 하신 보건소 직원 및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진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朴鍾植委員**님이나 **洪起瑞委員**님 또 **千相旭委員**님이 공통적으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내신 자료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207쪽을 보면 소독실적 및 횡수가 나와요. 여기에는 입방미터(m<sup>3</sup>)로 되어 있고 연막살충소독은 횡수로 나와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도 야단을 먹는 이유가 자료를 뽑으실 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봉사

대에서 약품을 수령을 해서 분무살균이나 분무살충을 했을 때 입방미터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횡수로 표시를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쉬웠을 것이고, 또 거기에 소독실적 및 횡수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자료 위쪽에 보면 상단에 동별 방역현황 그리고 소독실적 및 횡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소독실적입니까?

○**保健行政課長 李鐘珪** 소독실적 및 횡수는 저희 구청에서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보건소에서 한 것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새마을봉사대에서 한 것입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많이 실적을 거양을 하고 있는데 동별로 이 자료도 횡수를 뽑아서 제출해주셨으면 위원님들한테 야단을 먹을 일이 없잖아요?

○**保健行政課長 李鐘珪** 저도 그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자료를 제대로 뽑아주세요. 보건소 직원! 이리 오세요. 이 자료를 보건소장님부터 나눠드리고 남은 것은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보건소에 대한 내용, 통계가 중요하죠? 그렇죠? 소장님! 정책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자료가 중요합니다. 한 장씩 나눠드리세요. 우선 여러분들이 이 자료가 얼마나 영터리인지를 지금부터 밝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석 장씩 되어 있으니까 한 장씩 보세요. 2000년도 감사자료 2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눠드린 자료를 보십시오. '99년도 의료기관 지도점검 내역이 나와있죠? 보십니까? 소장님! 214쪽 현황은 608회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의료기관 지도점검 실적이 여러분들이 내신 자료에 의하면 '99년도 의료기관 지도점검 내역이 608회로 되어 있어요. 총계가. 그렇죠? 지금 나눠드린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의료기관 지도점검 추진 실적 '99년도 자료를 보면 업소수가 667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동일한 자료가 아닙니까? 왜 이렇게 계수가 틀린지 정확한 자료를 일단 제

출하시고, 두번째는 '99년도 의료기관 행정처분 현황을 밑에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는 현황 214쪽입니다. 2000년도 의료기관 지도점검 행정처분 현황에 자격정지상신이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눠드린 '99년도 286쪽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틀린지 자료 제출하시고, 세번째 보건소 내용을 제출하신 업무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감사를 받기 위해서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면 그 자료 보고서 18쪽을 보시면 2000년도 5월 31일 현재 점검대상 및 실적이 업소수가 616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자료가 다 틀립니다. 215쪽의 자료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하신 내역이 다 틀리거든요. 그렇죠? 그 사유를 데이터를 뽑아서 제출해주시고, 2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자료입니다. 보건소 주요 의약품의 구입과 재고현황이라는 여러분들이 내신 자료가 있는데 그 218쪽의 주요 의약품 구입과 재고현황은 몇 년도 것입니까? 이게 2000년도 감사자료

○保健所長 李星世 醫藥課長! 답변드리세요.

○醫藥課長 丁基聲 이것은 2000년 5월까지의 자료입니다.

○安載弘委員 2000년 5월 현재 5월 31일 현재입니까? 기준일이. 그런데 '99년도와 2000년도에 각 주요 의약품의 정수를 조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醫藥課長 丁基聲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얼마나 조정을 했습니까?

○醫藥課長 丁基聲 사용기간이 긴 것은 짧게 조정을 하고 대개 회전율이 맞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니까 조정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노바스크 정수가 5만 4천이예요. '99년도 정수가 몇입니까? 정수가

○醫藥課長 丁基聲 '99년도 정수까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거기에 내가 드렸잖아요? '99년도 감사자료 제가 드렸잖아요?

○醫藥課長 丁基聲 예, 3만 4천인데요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나왔냐면 노바스크는 고혈압 전문 치료약으로서 의사들이 중점적으로 여기에다 처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수를 그만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매를 5만 4천으로 정한 겁니다.

○安載弘委員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99년도에 노바스크를 예를 들자구요. 醫藥課長님이세요? 정수를 5만 4천으로 증가시켰죠? 그런데 월 소요량은 2,865밖에 안 잡았죠? 왜 그렇습니까? '99년도에 3만 4천 정수에서 월 소요량은 3,640을 잡았는데 정수를 2만이나 늘렸는데 1년 동안 월 소요량을 적게 잡은 이유는 뭡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정수를 늘리는 것은 사용빈도가 높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노바스크가 작년도에 3만 4천일 때도 월 소요량은 3,640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5만 4천으로 늘리고도 오히려 월 소요량은 줄인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醫藥課長 丁基聲 지금 의약품업이 실시 예정이기 때문에 그 약품을 보통 1개월씩 가져가는 것을 3개월씩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양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한 1개월 정도에서 갑자기 많이 나가버렸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면 정수를 늘리면 소장에게 결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醫藥課長 丁基聲 받지는 않고 예상량에 의해서 합니다. 년구입량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이것은 전체 의사님들의 처방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필요하다면

○安載弘委員 정수를 조정하면 의약품 구입비가 증가될 것이고 의약품 구입비가 증가하면 내부결재를 받아서, 소장님의 결제를 안 받습니까? 의사들이 얘기하는 대로 물량을 증가시켜줍니까?

○醫藥課長 丁基聲 연초에 모든 예산과 같이 결제를 받아가지고 구매 요구량을 책정합니다.

○安載弘委員 그런데 여러분들이 담당과장이 예산을 증액할 것이 아닙니까? 물량이 늘어나면

그 지출하는 원인에서 금액이 늘어날 텐데 소장님한테 결재를 안 받는다라는 얘기에요?

○醫藥課長 丁基聲 아니, 받습니다.

○安載弘委員 내가 이 얘기를 묻는 것은 정수 조정을 하는 것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醫藥課長 丁基聲 예, 받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99년도에 여러 분들이 정수를 3만 4천, 헤르벤이 3만 7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수가 늘어난 품목이 무려 13가지예요. 그 내부결재 서류를 사본을 제출해주시고, 이따가 오는 대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예, 安載弘委員! 수고하셨습니다. 12시가 되었습니다. 중식과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의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00分 會議中止)

(13時31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憲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李東奎委員! 질의하십시오.

○李東奎委員 李東奎委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우리 종로구 보건소 所長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종로구 감사담당관 이하 관계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필요한 시간을 드리더라도 문답식으로 질의할 테니까 짧게 대답을 해주시고 별도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감사담당관에게 묻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金周會 擔當官께서는 우리 종로구 공무원현장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예.

○李東奎委員 알고 계십니까? 첫 대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기억은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현장 공포한 것만 알고 있다?

○監査擔當官 金周會 예, 그렇습니다.

○李東奎委員 1개 관공서라고 하는 그런 기관에 최소한 감사담당관 정도의 자리에 있으려면 공무원현장의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공포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억을 못하십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예, 그렇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렇습니까? 공무원현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 공무원은 주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전통문화의 종로, 아름다운 종로, 미래로 나아가는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 노력하겠다」라는 것이 다짐이고 그 다짐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 「우리는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공무원이 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인지는 잘 알고 계시죠?

○監査擔當官 金周會 예.

○李東奎委員 이렇게 공무원현장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새 우리 공무원들의 태도는 관행, 관습에 젖어서 지금도 탈피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수감을 받고 계시는 우리 金周會 監査擔當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그렇다고 보십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많은 부분에서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많이 있습니까? 왜 못하셨습니다?

○監査擔當官 金周會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李東奎委員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 있는 사람 도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예.

○李東奎委員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갑니다. 서울시 안전기술단에서 나와 가지고 거기서 외부감사를 실시한 원장이 저한테 있습니다. 자료요구를 해서 제가 받았는데 여기를 보면 '99년도 감사담당관실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보시면 '99라고

써져 있죠? 맞죠?

○監査擔當官 金周會 예.

○李東奎委員 그런데 이것을 먼저 묻기 전에 우리 金周會 監査擔當官께서 지금 감사실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6개월 되었습니다.

○李東奎委員 약 6개월, 정확하게 6개월은 아니죠?

○監査擔當官 金周會 예, 그렇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면 '99년도에는 다른 분이 맡고 계셨죠? 그렇죠?

○監査擔當官 金周會 예.

○李東奎委員 그러면 이 부분에는 '99년도에 맞는데 감사담당관 결재란에 金周會라고 적혀 있는 건 뭐예요. 왜 金周會씨가 여기에다 결재를 했어요?

○監査擔當官 金周會 그러면 2000년도 업무 같습니다.

○李東奎委員 내가 보여드렸죠? '99라고.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면 '99년도에 계셨던 河撤昇 監査擔當官이 결재한 게 나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만들었다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료를 요구하면 전부 만들어다 갖다 줍니다.

○監査擔當官 金周會 제가 거기에 결재한 난이 있습니까?

○李東奎委員 있습니다. 한 개도 아닙니다.

○監査擔當官 金周會 그 서류가 아마 혹시 '99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연결되는 업무가 있을 경우는 문서처리상 철할 때 작년 것에 이어서 철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것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감사기간이 2000년 6월 12일 겁니다. 이것도 연결된 겁니까? 도로시설물 안전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감사결과 보고에 대해서 해놓은 겁니다.

○監査擔當官 金周會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李東奎委員 예, 짧게 하십시오.

○監査擔當官 金周會 이것은 감사를 '99년도에

실시해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달되는 게 2000년도에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서류의 연관성으로 해서 작년도 감사서류에 첨부해서 보관하는 것이 서류관리 또는 이용에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서류를 확실히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는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래요? 그러면 감사하고 나서 조치해놓는 것이 6개월 이상 걸린다는 겁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시에서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래요? 대단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과 처리한 거는 2000년도에 했으니까 2000년도로 철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99년도에 철해놨어요?

○監査擔當官 金周會 제가 서류를 안 봐 가지고 서류철에 관해서까지는 과장이 솔직히 어떻게

○李東奎委員 그것은 이따가 확인하기로 하고요.

○監査擔當官 金周會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또 하나 종로구청 토목과라고 써져 있는 내용에 도로시설물 감사지적사항 정비결과 보고입니다. 거기에 보면 결재란에 '99. 1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결재란에 담당자 장관규, 과장 전결 그리고 국장, 부구청장은 건너뛰고 구청장 결재란에 담당주사 김동수라는 사람이 구청장 결재란 안에 결재를 했는데 이 내용은 뭐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그 서류는 제가 지금 사본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 전결로 되어 있어서 아마 과장 대신 한 것 같습니다.

○李東奎委員 과장 대신도 그렇게 결재를 할 수 있습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아니, 과장 전결로 되어 있는데

○李東奎委員 그러면 구청장 결재란에 왜 김동수가 적혀 있습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거기 보시면 과장 전결란에 전결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李東奎委員 아! 과장 전결란에 전결이라고 썼기 때문에?

○監査擔當官 金周會 예.

○李東奎委員 그렇게 전결란에 전결이라고 쓰면 구청장 전결도 담당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예, 그렇습니다. 관례가 그렇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다. 또 하나 홍제천에 있는 다리 보수현장 같은 것을 찍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계시는데 사진이 원본도 아니고 복사를 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감사할 때 실질적으로 이런 자료를 그대로 내놓습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그에 대한 보완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지적사항이 나오면 시설관리부서에서 나가서 거기서 찍어서 하고 조치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할 때 복사해서 제출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래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전결란에 과장전결이라고 써져 있으면 구청장 결재도 담당자가 할 수 있다고 했고

○監査擔當官 金周會 전결이라는 말 자체가 과장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李東奎委員 그렇죠. 그러면 김동수는 담당주사인데 담당주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監査擔當官 金周會 아니죠. 지금 이것은 대리로 한 것 같습니다.

○李東奎委員 왜 대리로 했습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글썄요. 그 내용은 제가

○李東奎委員 대리라고 써 놓지도 않고 어떻게 대리로 전결합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李東奎委員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내용 중에 제목이 안전점검 결과 결함사항 종합적 관리계획서에 보면 전결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담당자 박현영이가 날인을 했고 토목과장 전결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구청장이라고 또 '대'라고 써서 전결을 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왜 그것은 '대'라고 쓰지를 않았습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제가 그 서류를 안봐서 명

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李東奎委員 모르시겠어요?

○監査擔當官 金周會 지금 그것은 전결한 사람이 직접 하면

○李東奎委員 전결하면 '대'라고 보편적으로 쓰죠?

○監査擔當官 金周會 아닙니다.

○李東奎委員 안 씁니까? 그러면 '대'라고 쓴 게 잘못된 거네요.

○監査擔當官 金周會 전결권자가

○李東奎委員 자, 그럼 전결이라고 했죠? 전결이라고 했으면 구청장란에 김동수라는 사람이 전결을 했어요. 그러면 '대'라고 쓴 것은 왜 '대'라고 썼어요?

○監査擔當官 金周會 이것이 사실은 '대'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2월달에 제가 오기 전의 일인데 이때는 토목과장이 공석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라고 해야 되는데 직원이 복사해서 우리한테 보내준 건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토목과에서 만든 것입니다.

○李東奎委員 인정하신다는 얘기죠?

○監査擔當官 金周會 저희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李東奎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말이죠. 최소한도 감사담당관 정도가 되면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監査擔當官 金周會 알겠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무내용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監査擔當官 金周會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글썄 전체 다 완벽하게 알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서류를 보면 일처리 하는데 지장 없이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모두 기억하고 답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서류를 보면 얼마든지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니까 아까 본인도 시인한 바와 같이 우리 金周會 擔當官께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말이 적절한 표현이에요.

○監査擔當官 金周會 예, 맞습니다.

○李東奎委員 자신 없으면 물러나세요. 그 자리에 뭐하러 앉아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피해 보는지 아세요? 그렇게 자신 없으면 뭐하러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자신 없으면 집에 가서 바둑이나 두고 있으면 되지 감사담당관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앉아 가지고 능력 없이 앉아 있습니까? 그리고 '99년도, 2000년도에 30인 이상 민원이 제기된 것이 2000년도에 22건, '99년도에 53건이 터졌습니다. 집단이거주의가 성행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예방조치를 한번도 안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왜 이런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나도 안 합니까? 또 하나 봅시다. 공무원 친절교육 시키겠다고 해서 얼마를 가져갔습니까? 그 결과가 뭐 있었습니까? 이번 정례회 때 본 위원이 구정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다. 그 소리는 지금 한두 번 한 겁니까? 돈만 갖다 쓰고 결과가 없어요. 내년도부터는 공무원 친절교육도 단 돈 10원도 예산 책정하지 않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재미가 있고 여유가 있으셔서 그렇게 웃으세요? 웃음이 나와요?

○監査擔當官 金周會 아닙니다.

○李東奎委員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웃음이 나와요? 얼마나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까? 알면서 실실 웃고 하지 마세요. 무엇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한 것 중 자신 있는 것 한 가지라도 얘기해 주십시오. 6개월 동안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監査擔當官 金周會 업무 보고할 때 드린 실적이 제가 결재를 하고 같이 추진했습니다.

○李東奎委員 업무 보고할 때 실적이 다 감사담당관께서 하셨?

○監査擔當官 金周會 같이 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면 부조리 없는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정말로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監査擔當官 金周會 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래서 완벽하게 다 잘했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공무원 친절교육 제대로 했습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렇게 '나름대로' 라고 얘기하지 말고 조금 전에는 다 했다고 하고서는 왜 나름대로 라고 그래요?

○監査擔當官 金周會 여기 보고 드린 내용에 한해서만

○李東奎委員 그러면 돈 액수만큼 한 겁니까? 돈 가져간 만큼만 공무원 친절교육을 시킨 겁니까? 사전예방감사 얼마나 하셨습니까? 거의 완벽하게 하셨습니까? 답변하세요. 웃지 말고 사전예방감사 얼마나 하셨어요? 거의 나름대로 완벽하게 했습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일상감사를 19번 했습니다.

○李東奎委員 19번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던가요?

○監査擔當官 金周會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돈도 2,000여 만원 삭감조치하고 설계가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바르게 시정하도록 시달한 적이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좋아요. 그렇게 일 열심히 한 부분은 높이 치하하겠어요. 일 못하신 부분들 구석지고 그늘진 곳에는 아직도 많이 가려져 있는데 우리 종로구 우리 의원님들이 이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찾아낸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 도대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예로 동감사를 나갔는데 동에서 얼마큼 잘못되어 있는지 아세요? 종로1,2,3,4가동 무허가에서부터 도로점용 또는 입간판들이 도로 한복판에 나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시인하고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또 우리 구청을 봅시다. 환경위생과 어제 우리가 지적했습니다마는 단속대상에 올라있는 업소들을 사후 조치를 계속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자료 가져오라고 하니 그때서야 조작해서

갖고 내려오는 지금의 작태는 도대체가 공무원들 어떻게 된 겁니까? 기강이 바로 서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우리 金周會 擔當官께서는 그런 정도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이 시인한 대로 정말 능력이 없는 것인지 뭐하시는 겁니까? 감사과는 그런 것을 올바르게 잡고 기강을 바로잡아서 민원에게 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공무원현장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전에 있던 감사담당관보다 오히려 金周會 擔當官이 와서는 표시도 안 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세요.

○監査擔當官 金周會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 능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임 과장보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李東奎委員 역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제안 설명하실 때 업무처리 부실한 직원들 12명을 처리도 하고 훈계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2명이 아니라 살살이 뒤져보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생각하신 끝에 규제개혁에 맞춰서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린이놀이터 관리실태 점검 나가서 얻어온 것이 뭐니까? 거기 나간 목적이 뭐예요? 제대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기 위해서 나간 거죠?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일 한다고 하니 지금 내가 비웃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일을 많이 했다고요? 어디를 얼마나 나가봤는지 몰라도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비만 오면 흙이 무너져 내려오는 상태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무슨 일을 6개월 동안 이렇게 많이 했다고 아까 千相旭 同僚委員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엄청난 일을 하셨네. 외상으로 그냥 걸으로 비취지는 것만 비취지면 잘 되는 양. 예? 뭐라고 얘기 좀 해보세요. 답답하니까, 친절하고 공정한 민원처리요? 친절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해줘서 의원들이 각 부서의 공무원들보고 신원을 밝히면서 아무개 의원한테 이리 좀 내려오라고 하면 “나 볼 일이 없는데요” 아니면 감사과에 근

무하는 직원은 의원한테 와 가지고 내가 당신 하수인이냐는 격으로 얘기하는 작태들이 비밀비재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金周會 擔當官께서는 최소한도 그런 정도는 파악하고 나가고 있는 것인지 기강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사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른 대로 말해 보세요. 현실을 너무 직시하지 않는 겁니다. 과거의 관습이나 폐습에 젖어있지 말고 우리가 새로운 개념으로 가자고 수차례 걸쳐서 누누이 많은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과거 관습, 폐습에 젖어있는 것을 가지고 능를 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능를 올린 겁니까? 지금? 친절교육평가, 또 상반기, 하반기 직원들 나눠서 뭐를 했다고 몇 천명 적어놓고 구구하게 적어놓은 것을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동대문 상인들이 쓰는 은어가 있습니다. 당신께서 웃기신다고 할 때 당산개 오시라고 합니다. “당산개 오십니다.” 그리고 사전 예방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해야 됴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아직도 상당히 미약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인정하십니까? 답변하세요.

○監査擔當官 金周會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입장으로 보면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될 것 같습니다.

○李東奎委員 본인이 생각할 때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많이 하는데, 그럼 우리가 보는 눈은 그런 것이 보여야 됩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글썽 그 기준이 모든 일에서 보는 관점이 다르면 결과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李東奎委員 관점이 다른 것이 어떤 겁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글썽 그것은 저희가 보는 관점이고 위원님이 보시는 관점은 모르기 때문에

○李東奎委員 우리 감사담당관이 보는 관점은 어디까지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監査擔當官 金周會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으로 와서 저 개인적으로는 나 스스로가 먼저 자기 통제를 잘하고 내가 잘해야 다른 직원들 감사할 때 비난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내 스스로 다른 부서에 근무할 때보다 스스로 엄격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도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제 생활신조가 '열심히 살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직원이 뭐라고 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 능력에서는 최고로 열심히 한다 그것이 내 생활신조입니다. 그러나 보시기에 따라서는 위원님들이나 높은 관리자 입장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는 아직까지 일에 관해서 만큼은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는 저 나름대로 와서 6개월 동안 업무과약을 하면서 내가 우리 직원과 화합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주신다면 앞으로 저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데 힘써서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하고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아주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도 또 이런 공식석상에서 지원과 충고를 해주신다면 李東奎委員님이 하시는 오늘 얘기를 더 받들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잠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오버되었는데, 金周會 課長님! 대단히 좋은 말씀하셨어요.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金周會 課長님께서 전에 감사담당관으로 가시기 전에 기획예산과에 계시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했고 우리 의원님들의 눈에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속담에 너무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과 같은 그런 느낌. 왜 다른 부서에 있을 때는 근무를 그렇게 잘하고 일도 열심히 하던 사람이 왜 감사담당관으로 와가지고는 빛이 안 나고 일이 없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이 감사담당관을 무슨 타겟으로 정해놓고 일

부러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은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셨습니다. 일을 많이 하셨어요. 전 의원들이 정말로 선망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정말 일할 사람이다, 내 입에서도 그런 말을 했으니까요. 金周會 課長님은 열심히 하시더라구요. 그렇게 했는데 감사담당관으로 부임해서 간 뒤로부터는 전 공무원들이 태도가 달라져, 하급 부서에 있는 직원들 태도가 달라져요. 왜 고위정책위원회라도 할 때 그런 것도 반영을 시켜서 전체 분위기가 어떻게 나간다는 것도 아시고, 공무원들 사기 문제가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아시고, 친절 문제가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아시고, 의원들이 지적하기에 앞서서 먼저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金周會 課長이 왜 그러느냐는 애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얘기 인정합니다. 그러나 능력이 많이 부족된 것은 한계점이 온다는 얘기죠.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런 사감이 없어요, 우리 감사담당관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우리 총로구가 민의를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에서 우리 감사담당관에게 지나친 얘기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좀더 노력을 해주실 것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새로운 차원에서 개념을 바꿔서 한번 멋있게 해나가볼 그런 의욕과 꿈이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짧게 한번 밝혀주시시오.

○監査擔當官 金周會 저는 감사과장으로 와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를 생각합니다. 어느 자리를 가든 과장으로 옮기면 이 자리에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것부터 생각합니다. 저는 감사과장으로 가서 그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를 세 가지 방향에서 했습니다. 첫째는 대외적으로는 우리 조직을 보호하고 대내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강을 확립하면서 또 우리 업무가 계획된 방향으로 추진되는지를 정상적으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감사의 방법을 두

가지로 했습니다. 첫째는 주요한 감사를 하자, 두 번째는 도와주는 감사를 하자. 저는 직원들한테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왜 그동안은 감사를 하면 직원들이 항상 처벌을 하고 잡아서 단점만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면 위축이 되고 감사를 기피하는 그런 관행이 잡혀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조금 바꿔보자, 왜 감사 받으라고 하면 기피하느냐, 구청 감사가 도와주고 직원을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인데 오히려 위축되어서 일이 안된다고 하면 감사가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까지도 술좌석에서나 개인적으로 만나면 주요한 감사라는 것은 감사가 활성화되면 조직이 위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검찰이고 경찰이고 시 감사과고 감사하러 오면 몸을 사리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을 하되, 그렇다고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고 보이지 않는 일을 하자 그런 것을 누누이 강조를 해가지고 의원님들에게 혹시 일을 안하는 것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와주는 감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래서 제가 보고서에도 일곱 사람인가 저희가 추천을 해서 표창을 하자고 했습니다. 저희는 직원들한테 감사를 할 때도 가서 나쁜 일을 유형별로 몇 건씩만 잡아와라,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잡아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가르쳐주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감사의 권위가 서는 것이지 감사는 가서 소리지르고 해서 권위를 세우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다, 권위는 명확하게 우리가 업무를 알아서 잘 가르쳐주고 스스로가 잘못을 인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권위를 가지는 길이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감사를 해오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李東奎委員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제가 잘못된 게 많아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金周會 課長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는 소리를 지르면 안되는 거군요. 제가 소리

지르는 것은 잘못된 거네요?

○監査擔當官 金周會 위원님한테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도와주는 감사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토론문화가 제대로 정착이 되어 있습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李東奎委員 그건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토론문화가 정착되어 있으려면 최소한도 감사담당관이 자기 주무부서에서부터 외부 부서까지도 기회 있을 때마다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발전이 나오는 것이고 품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감사, 말로만 도와주는 감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소리 지르면 안된다고요? 잘못되었으면 소리 질러야죠. 해서 말 안 들으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답답하면 소리 지르겠어요? 그것도 때로는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토론문화가 외국 같은 데는 선진국 같은 데는 얼마나 잘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최소한도의 토론문화를 정착을 시켜서, 대화가 너무 적은 거예요. 우리가 각 부서마다 감사를 해보면 팀장하고 그 밑에 산하에 있는 주사, 주사보 많은 사람들이 대화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 파악도 못하고 뭐가 일어나는지 하나도 모르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대화를 하고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정착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접해야지, 도와주는 감사 말로만 도와주는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새로운, 지금은 뉴밀레니엄 시대가 아닙니까? 새로운 어떤 차원을 바라보고 그곳으로 가주고 당겨서 종로구청이 얼마나 많은 말과 얘기를 했습니까? 좀 바꿔보자 새로운 것을 가져와 보자고 했으면 바꾸자, 바꿔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쪽으로 金周會 課長을 관심있게 봤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앞으로 같이 의회에서 같이 토론하고 여러분들께서도 같은 장에서 내일부터 당장에 각 부서에 토론할 수 있는 토

론의 장도 열어주시기 바라고 새로운 개념에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도와주셔서, 제가 너무 지루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글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짤막짤막하게 요점만 질의하고 답변도 짧게 해주십시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金正大委員! 질의하십시오.

○金正大委員 金正大委員입니다. 아까 보건소 소장님 이하 우리 감사과장님들한테 질문이 많아서, 제가 준비한 것도 감사관 쪽으로 준비를 몇 가지 했습니다. 조금 실 틈을 쥐야 되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周會 課長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가지고 계시죠? 2쪽을 보면 소관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있고 관용심사위원회가 있고, 저는 구의원이 5년째입니다마는 이런 위원회가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좀 부주의해서 그런지 조금 전에 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가지고 왔어요. 감사위원회라는 것은 감사를 하는 거죠? 감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그런 자문을 얻는 겁니까? 토론을 하는 겁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자문위원회입니다.

○金正大委員 자문입니까? 그러면 감사위원회 하고는 감사를 하는 분들만 위원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까? 그렇죠?

○監査擔當官 金周會 관용심사위원회는 무슨 부당하게 적출이 되었다든가 적발이 된 사람들을 관용해주는 것을 모토로 해서 대화를 하는 위원회입니다. 업무추진을 하다가 열심히 했는데 혹시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

○金正大委員 예,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 관용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용심사위원회는 공무원들로 구 간부들로 되어 있습니까? 외부인이 있습니까? 전부다 과장님들이네.

○監査擔當官 金周會 간부들로 되어 있습니다.

○金正大委員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들어가면 안됩니까? 구성 위원으로,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좀 부당하다 억울하다 이렇게 하급 공직자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간부들끼리 모여서 주거나 받거나 조금 내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보는데 우리 구의원들이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가면 안됩니까? 무슨 모범이 있습니까? 자법이 있습니까? 왜 그러느냐면 말이죠 5개 위원회가 있는데 구의원이 참석하는 위원회가 감사위원회에 구의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민원심의위원회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구의원 한 분은 어떤 분입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洪起瑞議員님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金正大委員 그런데 감사위원회를 연중 몇 번 실시하고 있습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지금 거의 몇 년째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金正大委員 몇 년째 된 것을 사실 이게 제척이 된 위원회나 다름이 없는데 왜 이렇게 자료에다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여기에다 삼입을 해놨죠? 모두에다 위원회 현황을 보고서에다, 위원회 존재 가치가 없다고 해서 몇 년째 위원회를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의원 이름만 하나 박아 넣고 실질적으로 토론이나 자문이나 이러한 기능이 소산되지 않는 위원회를 왜 두고 있느냐 방치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위원회를 없앨 용의가 있습니까? 다시 활성화할 용의가 있습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저도 자료를 챙기면서 확인해봤는데

○金正大委員 감사담당관으로 재직하신 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6개월 되었습니다.

○金正大委員 감사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감사를 위한 유사한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띠게 된다면 이 위원회가 명실공히 여기에 위원회 운영현황 그 명단에 서열에 보면 제일 모두에 꼭대기에 첫번째 순위로 나와있어요. 제일 밑으로 끌어내리든지 서울역의 지게꾼도 순서가

있어요. 몇 년 동안 방치해둔 위원회를 왜 제일 위예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관용심의위원회는 구의원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는, 이진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심사위원회네. 이 심사위원회는 몇 번이나 개최했습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이것은 '99년도에 3회를 개최했습니다.

○金正大委員 2000년도에 들어와서 한 번? 누구 말마따나 뉴밀레니엄에 들어와서 한 번도 안 했다는 말이에요?

○監査擔當官 金周會 예, 아직까지

○金正大委員 그러면 이것도 사실상 가치가 별로 없는 위원회네요.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어 있습니까? 책정되어 있습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없습니다. 비예산입니다.

○金正大委員 왜 민원심의위원회나 심사위원회는 5만원씩이라든가 얼마씩이라도 해가지고 수당을 주는 게 예산으로 책정이 안되어 있어요?

○監査擔當官 金周會 그것은 외부의 민간인이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때만 지급됩니다.

○金正大委員 그러면 구의원은 외부인입니까? 내부인입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구의원님들이 참여하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金正大委員 그러면 외부인으로 들어갑니까?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몇 번 개최했습니까? 여기에는 구의원이 한 분 계시는데

○監査擔當官 金周會 3회를 개최했습니다.

○金正大委員 금년에 들어와서?

○監査擔當官 金周會 올해는 2번 개최했습니다.

○金正大委員 여기에는 내가 어느 분인지 제가 항상 존경하는 분이시고 한테 이것은 말썬의 소지가 있었던 것인데 말썬이라기 보다는 우리 구의원이 월 삼십몇 만원씩 받다가 오십몇 만원 올려놓고 재산등록을 연초에 제대로 안했다고 해서 감사하는 공무원들과 가장 밀접하게 예민하게 구의원들을 감는 피곤하게 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로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는데 A라는 국민은행과 B라는 무슨 은행 금융 거래하는 금융업체에서 잔고증명을 떼어옵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바쁘다보니깐 잔고증명을 떼어주는데 거기에 누락이 되었어요. 그것은 구의원이 잘못입니까? 금융업체가 잘못입니까? 그것도 심의대상이 되어 있더라도 기억하십니까? 못해요? 기억이 안 나요?

○監査擔當官 金周會 예.

○金正大委員 금융업체 장의 이름으로 지점장이면 지점장, 예금 잔고 예·적금의 모든 잔고증명을 해주는데 거기에 전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다줬는데 무슨 A라는 의원이 그것을 기피했다고 누락을 시킨 것은 금융업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구의원이 잘못된 거예요? 그 기준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심의대상이 됩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글썬, 내용을 정확히 몰라 말씀을 드리기가

○金正大委員 됐습니다. 그리고 민원심의위원회는 이 민원이라는 것은 종로구 전체의 민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감사관에 들어온 민원만 얘기하는 겁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종로구 전체

○金正大委員 그러면 우리 의회에 민원이 들어온 게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의회에 별도로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金正大委員 물론 의회로 별도로 민원이 접수 많이 되는데 의회에 2000년도 5월 30일, 6월 30일까지 민원이 몇 건이나 접수되었는지 관심있게 챙기고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 시대는 민원이 우선입니다. 감사가 뭐하는 거예요? 아까 도와주고 지도해주고, 표현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관심있게 의회 쪽에도 민원이 몇 건이 접수되었는가가 이렇게 봐서 좀 처리를 하는데 앞장서서 관심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대책위원회 이것은 1년에 몇 번 심의했어요? 이것은 위원장이 구청장인데

○監査擔當官 金周會 작년도에 한번씩 했습니다.

○**金正大委員** 금년에는 한번도 안했습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작년에 한번, 금년에 한번

○**金正大委員** 이것은 23명이나 되는데

○**監査擔當官 金周會** 유관기관 16명인데

○**金正大委員** 제가 왜 이 위원회를 묻느냐 하면 예산심의를 하다가 보면 이 위원회 수당들이 예산을 수반할 때 올라올 때가 더러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위원회는 몇 개입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지금 관용심사위원회만 빼고 나머지는 외부인들은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金正大委員** 감사위원회는 이삼년 동안 한번도 안했다면서요? 예산 수반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金正大委員** 확보는 되어 있는데 예산 지출은 없었다고? 그것을 자료로 할 수 있어요? 불용액으로 다 넘어갔어요?

○**監査擔當官 金周會** 예, 그렇습니다. 집행을 안했습니다.

○**金正大委員** 불용액으로 다 넘어간 걸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해줘요. 감히 의원이 감사관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연중 이렇게 감사기간에 한번 정도 있는데 어디가 높은 자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주민의 대표이니까 이것은 분명히 공개적으로 질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불필요한 위원회는 왜 만들어놓고 해마다 예산을 올리느냐는 겁니다. 그래 놓고 불용액으로 슬그머니 내동댕이쳐버리고 더군다나 감사관들이 고위나 하위 공직자들의 모든 면을 이렇게 좀 잘못된 부분을 정리 정돈해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될 분들이 감사위원회조차도 한번도 안했다면 무슨 말잔치로만 자꾸 말이 되겠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참에 어느 위원회를 해산시킬 거예요? 앞으로 계속 존치시킬 겁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예, 감사위원회는 상위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金正大委員** 상위규정에 의해서, 상위규정도 잘못된 것은 하의상달 해가지고 한번 올려보낸 적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위원회는 사실 필요 없습니까라고 해서 모범을 수정하는 것은 밑에서 위로 걸어올라가야지 위에서 내려주는 것만 맨날 우물 딱주물딱 이렇게 어느 세월까지 그냥 합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예, 맞습니다.

○**金正大委員** 그럴 용의가 있어요?

○**監査擔當官 金周會** 저도 이것을 몇 개로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金正大委員** 우리가 상위법에 의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우리 구의원들이 질의하면 꼭 상위법을 들고 이렇게 피해가는 모습들을 볼 때 좀 측은하기도 하고 용기도 없고 소신이 없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물으니까 종로구 공직자들의 그것도 물으니까 잘 모르시고 그래 가지고 무슨 감사를 제대로 하십니까? 나도 아까 봤는데 중간에 나도 한 가지 물을게요. 우리 종로구 직원들이면 누구든지 이런 철을, 편철을 하나씩 몇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좌측으로부터 붙은 목록표 이게 됩니까? 색인목록 맞죠? 내가 이번 행정감사에 동감사를 나가가지고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고칠 겁니다. 이걸 왜 붙여놨죠? 뒤에 게시는 공무원님들! 이걸 왜 붙여놨어요? 상급자나 하급자는 누구든지 이 서류가 필요할 때 찾기 쉬우려고 색인목록표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감사담당관실에서까지 이것을 하나 서류를 찾으려면 못 찾아요. 색인목록만 해놓으면, 나는 회사를 오래 경영한 사람인데 색인목록을 보고 어느 金周會氏 담당에서 무슨 서류가 왔다 이렇게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서수발부로 개념이 보입니다마는 이것은 색인목록 그대로예요. 이게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여기 한 보따리 갖다왔는데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30년 전부터 행정 능률화 행정 쇄신화, 누구든지 시골에서 지게 지고 농사 짓다가도 군대에 가면 부관학교 나온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런데 앞서가는 종로, 수상은 수십개를 했다고 하면서 이게 감사관실에까지도 이 색인목록을 정리를 안하면 서류 찾을 수 있어요? 없어

요? 우리 새마을금고 한번 가보세요. 새마을금고도 이런 것 다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말도 안되는 소리. 이 서류를 어떻게 찾습니까? 색인 목록은 왜 붙여놨느냐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짧게 대답해주세요. 기본이에요. 이것은 원래 형식적으로 붙여놓은 겁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監査擔當官 金周會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金正大委員 감사관실이 이러니까 각 동사무소나 어느 부서든지 가서 뒤져봐요. 이것 다 필요 없는 종이 내다버리는 거예요. 전부 종이 수입해오는 겁니다. 기본이 안되어 있어요. 내가 동감사를 나간 동은 이것 다 고쳤습니다. 서류를 하나 찾아보려면 근무시간에 맨날 이것만 찾아보다가 노란 것, 파란 것 붙이기는 왜 붙여요? 여기에다 해놓으면 그냥 찾는데 좀 각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감사관실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은 분명히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전부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주요 추진사항만 제가 시간관계로, 벌써 15분이 되었네요. 그런데 5쪽을 보면 '구청을 지원하는 생산적인 감사활동 전개' 해놨는데 도로 부분이 한 건밖에 없습니까? 이것은 종로구 전체가 한 건입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일상감사를 한 것이 그렇습니다.

○金正大委員 일상이라는 것은 늘 하는 감사인데 365일을 해도 한 건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건축 부분이 2건, 녹지 부분이 10건인데 웬만한 녹지 부분만 많이 나왔구만. 건축하고 도로, 토목이쪽이 핵심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녹지 부분에 나무 몇 포기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가장 이 도로 부분, 건축 부분, 건축 부분이 어떻게 두 건밖에 없습니까? 이것은 적발을 했다는 거예요? 적출을 했다는 거예요? 감사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監査擔當官 金周會 이것은 해당과에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과에 요청을 합니다. 사전에

○金正大委員 그러니까 1년 동안에 건축이 두 건

뿐이고 도로가 한 건뿐이었다는 겁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예.

○金正大委員 정말 혀를 잘 노릇입니다. 제가 아는 것도 한 개 동만 해도 몇 개씩 될텐데 정말로 두 건밖에 안돼요? 이게 감사과에서는 말이죠 감사관실에 직원이 제가 보니까 수적으로 일손이 모자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종로구 전체의 모든 것을 감사에 관한 한은 지도 기능도 있고 감사 기능도 있고 검사 기능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로 부분이 한 건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한 건하고 건축 부분 두 건하고 녹지 부분 10건하고 실제 서류를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監査擔當官 金周會 예, 해드릴 수 있습니다.

○金正大委員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마지막에 11쪽에 보십시오. 오늘 바로 이것을 서류를 접해 가지고 바로 즉흥적으로 하다보니까 좀 그러네요. 구청장 직소민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접수현황이 5월 현재인데 372건, 처리현황이 372건입니다. 맞죠? 그러면 372건을 다 처리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봐도 되죠? 그런데 완결이 363, 수용이라는 뜻은 뭐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監査擔當官 金周會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얘깁니다.

○金正大委員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처리했다 이 내용이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요약해서 여러 가지 각양각색이 있겠습니까마는 대표적인 예만 한두 가지만 들어주실래요?

○監査擔當官 金周會 무단주차 단속 같은 것을 시정해달라거나 건축 일반 민원과 거의 유사한 겁니다. 대개 각 과에 갔다가 처리가 안되면 구청장에게

○金正大委員 그런데 이것은 각 과에서 수집한 겁니까? 감사과에서 이렇게 독자적으로 접수한 것입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이것은 구청장실에 직소민원실이 있습니다.

○**金正大委員** 구청장실에 민원실에만 들어온 걸로 한 겁니까? 구청장실에는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감사관실에는 도로 1건, 건축 2건밖에 안 들어와요? 감사관 앞에는 무슨 호랑이가 지키고 있었어요?

○**監査擔當官 金周會** 이것은 주민들이 찾아와가지고

○**金正大委員** 그러면 수용불가 136건은 어떤 종류입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법규상 저촉되는 것을 많이가지고 오십니다.

○**金正大委員** 진행 중인 2건은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擔當官 金周會** 예, 알겠습니다.

○**金正大委員** 구청장 직소민원실에서 한 거라니까, 됐습니다. 많습니까마는 동료위원들을 위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安載弘委員! 질의하십시오.

○**安載弘委員** 安載弘委員입니다. 일단 보건소에 아까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담당과장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가져오신 것 있으세요?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나눠드리고 틀렸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세요. 보건소장님! 2000년도 보건소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34억 5천

○**安載弘委員**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세요?

○**保健所長 李星世** 정원 75명에 현원은 74명이 되었습니다.

○**安載弘委員** 금년 5월인가요?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保健所長 李星世** 예, 그렇습니다.

○**安載弘委員** 감사 결과 시정요구서를 받으셨나요? 감사 결과 감사담당관실에서 무엇무엇을 잘못했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시정하고 복무하라는 시정요구서 받으시잖아요? 받으셨나요?

○**保健所長 李星世** 예, 담당 소관 인력들은 받았

습니다.

○**安載弘委員** 다 받았습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예.

○**安載弘委員** 몇 명이 적발되고 시정요구를 받았습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7명 정도

○**安載弘委員** 아니죠. 뒤에 앉은 계장들은 위원이 질문하게 되면 과장이나 소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자료를 챙겨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금년 5월에 감사담당관실로부터 감사를 받았는데 과연 몇 분이 시정요구를 받았느냐 이것입니다. 몇 명이나 시정요구를 받았어요?

○**保健所長 李星世** 답변 드리겠습니다. 훈계가 2명이고 재정상 조치로서 7건이 되었고 제도개선으로 4건이 됩니다.

○**安載弘委員** 관련된 공무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인력이 각 부서에 담당팀장들이 9명이 되었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니까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하고 관련되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시정요구가 왔잖아요. 각 과별로 또는 방역팀별로 시정요구받은 관련된 공무원의 숫자가 모두 몇 명이나고요.

○**保健所長 李星世** 예, 9명 정도

○**安載弘委員**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누가 담당해요?

○**保健所長 李星世** 그러니까 소관별로 제가 얘기한 건 주로 팀장들이 가서 받았거든요.

○**安載弘委員** 아니, 팀장이 잘못했든 담당직원이 잘못했든 그 관련된 총 공무원의 숫자가 몇 명이나니까요. 아는 직원이 한 사람도 없어요?

○**保健所長 李星世** 인력이 22명입니다.

○**安載弘委員** 22명이 관련되어 있어요? 그것밖에 관련 안되어 있어요? 28명이 관련되어 있던데

(○關係公務員 關係官席에서 - 타구로 나간 직원을 빼고 나머지 직원)

○**安載弘委員** 아니, 그러니까 일단 5월달에 감사를 받았으니까 타구로 빠진 직원이라 할지라도 감

사 당시에 관련된 인원이 28명이란 말이예요. 만약에 22명이라고 답변을 하더라도 총 28명인데 그 중에 6명이 타구로 전출되거나 전보되었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모두 74명의 직원 중에서 28명이 관련되어 있어요. 적어도 시정요구를 받든지 훈계를 받든지 그 시정이나 훈계가 적절한 형량인지 모르겠지만 74명의 직원 중에서 28명이 적어도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기본적인 얘기는 보건소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74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28명의 직원이 관련되었다면 30% 이상 되는 직원들이 3명 중에 1명의 직원이 도대체 업무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 행정의 난맥상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保健所長 李星世**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 미비가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安載弘委員** 어떻게 고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시죠.

○**保健所長 李星世** 소관별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대안을 마련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래서 감사담당관하고 보건소장이 나란히 계시는데 종로구 감사규칙에 의하면 적어도 보건소, 국은 2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특히 보건소는 2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 감사한 지는 몇 년이나 되었죠? 감사담당관!

○**監査擔當官 金周會** 3년입니다.

○**安載弘委員** 그렇죠? 제때 하시면 자꾸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고 그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줘야만 행정이 나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예.

○**安載弘委員** 제가 지금 얘기드린 74명의 직원 중에서 28명이 사실 시정조치나 훈계조치를 받았

다면 대단히 잘못되었고 정말 보건소에는 문제가 적어도 40% 가까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하셨으면 아까 통계자료가 다른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보시죠. 과장님! 아까 제가 자료 불러드린 것 중에서 5가지가 있는데

○**醫藥課長 丁基聲** 의약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安載弘委員** 제가 맨 처음에 질문한 게 감사자료 214쪽의 '99년도 의료기관 지도점검 내역'이다 르거든요. 이게 왜 다른지

○**醫藥課長 丁基聲** 이것은 '99년도 10월말 현재 제출할 때는 627개 업소였지만 그 동안 '99년 12월말 현재 608건으로 되는 것은 의료기관이 영입 부진으로 해서 또는 장소이전으로 해서 업소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000년 5월말까지 해 가지고 일부 업소가 증가일로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숫자가 조금 변동사항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安載弘委員**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2000년 자료에는 의료기관 대상수가 608이었고 '99년도 10월인가 11월에는 627이었는데 소위 영입의 개폐업으로 인해서 줄었다 이거죠?

○**醫藥課長 丁基聲** 늘어났습니다.

○**安載弘委員** 어떻게 늘어나요?

○**醫藥課長 丁基聲** 608개 업소에서 2000년 5월까지 해서 612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4개 업소가 늘어났습니다.

○**安載弘委員** 아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醫藥課長 丁基聲** 거기에 조금 미스프린트가 있는 모양인데요.

○**安載弘委員** 아니, 그러니까 2000년도 행정감사자료 214쪽에는 '99년도 의료기관 지도점검내역'이 608개였잖아요. 이것이 '99년도 통계잖아요.

○**醫藥課長 丁基聲** 이것은 '99년 12월말까지의 통계입니다.

○**安載弘委員** 어느 게?

○**醫藥課長 丁基聲** 608개가요. '99년도 12월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安載弘委員 그러니까 286쪽 전년도 감사자료, 내가 드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작년도에 보건소 감사받을 때 낸 자료 아까 내가 드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627개로 되어 있다니까

○醫藥課長 丁基聲 그것이 미스프린트가 생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검토해 본 결과 미스프린트가 생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安載弘委員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미스프린트예요?

○醫藥課長 丁基聲 예.

○安載弘委員 아니, 이게 행정감사사무자료인데 잘못된 프린트란 말입니까? 그럼 보건소는 도대체 감사받을 때 잘못 인쇄된 자료를 냈습니까? 지금 과장 얘기대로 잘못된 미스프린트라면 이 내역도 다 미스프린트라는 얘기예요?

○醫藥課長 丁基聲 아니, 숫자가 타자 칠 때

○安載弘委員 그러니까 지금 과장 답변대로라면 '99년도의 286쪽에 있는 의료기관 지도점검 추진 실적 이 내역이 미스프린트라고 했던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 종합병원, 치과, 한의원, 안경업소 유사업소가 다 미스프린트예요? 지금 과장 답변대로라면 이게 다 미스프린트여야 이 숫자가 맞잖아요.

○醫藥課長 丁基聲 이 업소를 계산하면서 조금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할 때 말씀드린 게 통계가 정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건소 의약과장이 관내의 병원을 포함한 여러 가지 업소들이 도대체 몇 개가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을 집행하거나 어떤 정책의 목표를 세우거나 행정의 목적을 세울 때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미스프린트란 말입니까?

○醫藥課長 丁基聲 총계 업소를 합계하면서 계산이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安載弘委員 이게 미스프린트예요? '99년도 자료가?

○醫藥課長 丁基聲 예.

○安載弘委員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그 밑에 자격정지상신이 214쪽에 금년에는 8건으로 되어 있는데 286쪽 종전 자료에는 자격정지가 1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醫藥課長 丁基聲 그것은 대지한의원이 자격정지가 나왔을 그 시점 이후에 7건이 새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틀린 것 같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면 7건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꼭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醫藥課長 丁基聲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입한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는 현재 '99년도 10월말까지 해 가지고 3만 4,000정을 그때까지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해 가지고 그 이후에 2만정 가까이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만 4,000정이 되어 있고 5만 4,000정 중에서 갑자기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된다고 그러니까 약품이 조금 많이 나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安載弘委員 잠깐만요. 정수의 개념이 뭐니까? 지금 보건소 주요의약품 중에서 정수의 개념이 뭐냐고요.

○醫藥課長 丁基聲 정수는 우리 의약품 1정, 2정 이렇게 타블렛(tablet)을 얘기하는 거죠.

○安載弘委員 지금 과장이 뭘 몰라도 너무 모르네요. 이 정수라는 것은 종로구물품관리조례에 의한 정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잘 들으세요. 모르시면, 정수라는 것은 물품관리규정에 의한 정수인데 그 정수라는 것은 지금 타블렛(tablet)이 아니라 각 약품별로 보건소가 보유해야 하는 의무수량을 말하는 거예요. 타블렛이 아니라 웬 타블렛이야! 의약과장이 그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의약과장을 하신다고 하세요. 참 나, 소장님! 제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답변 좀 해보세요. 정수가 뭐예요? 소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세상에, 뒤에 있는 계장, 계원들은 과장이 잘못 답변하면 그것을 보완해서 잘할 수 있도록 안 해주세요? 정수도 모르는 과장이 어떻

게 예산관리하고 통제하고 물품관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정수 그대로라면 말이죠. 노바스크, 헤르벤 이런 게 적어도 6만개씩 보유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醫藥課長 丁基聲** 타블렛(tablet)이 맞다고 판단하는데요. 정수라는 이 용어는 몇 정이나 이런 정을 얘기하는 거고

○**安載弘委員** 물론 타블렛(tablet)이 정이라는 건 저도 알아요. 100T로 표시하는 건 아는데 제가 볼 때 이 구입가 현황에서 노바스크의 정수라는 것은 보건소가 보유해야 하는 또는 보건소가 적어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기본수량을 얘기하는 것이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醫藥課長 丁基聲** 그런 뜻 아닌데요.

○**保健所長 李星世** 여기서는 단위를 얘기한 겁니다.

○**醫藥課長 丁基聲**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수물품 얘기가 아니고

○**安載弘委員** 전문위원! 말이죠. 그것 좀 해명해 보세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보건소가 맞는지

(○**專門委員 姜光日** 關係官席에서 - 물품정수는 安委員님이 말씀하시는 물품관리조례에 의한 정수량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의약품장이 말하는 정수는 약품에 대한 수량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醫藥課長 丁基聲** 그렇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니까 견해 차이,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 제가 그 얘기를 주장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관량이 그 옆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관량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정수가 옳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약품장의 말이 맞다면 적어도 보관량에 3만 4천이 되는 5만 4천이 되어야 되는 거지 정수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면 3만 4천이나 5만 4천은 적어도 보건소에서 보유해야 하는 물건의 양이라고 보는 거고

○**醫藥課長 丁基聲** 그것은 말이죠.

○**安載弘委員** 보관량이라는 뜻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량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醫藥課長 丁基聲** 그 동안에 작년 10월 30일 이후의 처방에 의해서

○**安載弘委員** 내가 그 얘기를 자주 따지는데 개념을 분명히 알라고. 당신네 데이터 속에 월 소요량이 있고 연간 소요량이 있잖아! 연간 소요량이 3만 2,781개니까 정수가 3만 4,000개 아니요. 예? 감사담당관! 내 얘기가 틀려요? 맞아요? 이런 사람들하고 감사를 하라고 해요? 정수라는 건 보건소에서 1년 동안 보유해야 하는 숫자를 말하는 거고 연간 소요량이 3만 2,000개라는 것은 당신네들이 3만 2,000개가 필요하니까 정수를 3만 4,000개로 정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2000년도에 5만 4,000개로 한 것은 연간 소요량이 5만 4,000개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5만 4,000개 내지 5만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내가 자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醫藥課長 丁基聲** 예, 알겠습니다.

○**安載弘委員** 무슨 타블렛이야! 타블렛은, 나 참! 여러분들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뭐를 할 때 보면 물품관리규정에 의해서 구매를 하잖아요. 그리고 반품을 하게 되면 물품관리규정에 의해서 반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간 소요량이 나오는 것은 정수가 연간 소요량을 상회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연간 소요량에 맞춰서 정수를 지정하고 연간 소요량이 증가하면 여러분들이 정수를 늘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구체적인 문제니까 그렇게 하고 또 얘기해 보시죠.

○**醫藥課長 丁基聲**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리고 아까 정수가 늘어났잖아요? 아까 내가 얘기를 하니까 정수에 대해서 내부결재 받은 것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주세요.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정수를 늘린 기본적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연간 소요량이 증가하니까 정수를 늘렸다고요. '99년도

에 각 주요의약품의 정수가 2000년보다 적죠.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연간 소요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정수를 늘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정수를 늘리려면 소위의약품구대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에 의거해서 내부결재를 받은 품의서를 가져오라 이 말입니다. 아까 있다고 하셨잖아요.

○**醫藥課長 丁基聲** 그것은 연초에

○**安載弘委員** 아까 품의서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제출하라 이 말이에요.

○**醫藥課長 丁基聲** 알겠습니다.

○**安載弘委員** 아니, 아까 식전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3시가 넘었는데도 자료를 안 가져와요? 그것을 누가 담당해요? 계원 중에서. 아니, 왜 자료를 내라니까 자료를 안내요? 도대체 위원들이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면 왜 안 가져오는 거죠? 자료가 없으면 없어서 못 가져온다고 그러세요. 왜 있다고 하고서 찢찢매요. 자료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말을 해요.

○**醫藥課長 丁基聲** 계획서가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있으면 왜 안 가져와요? 점심시간 1시간 반이나 쫓는데

○**醫藥課長 丁基聲** 가져오겠습니다.

○**保健所長 李星世** 잠시 후에 가져오겠습니다.

○**安載弘委員** 보건소! 일들 똑바로 하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 감사 쉽게 안 끝나요. 자료를 요구하면 “위원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위원 숫자에 맞춰서 갖다 주고,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그러세요. 잘못된 걸 시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하겠습니다.”하고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말씀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모르세요?

○**保健指導課長 金相駿** 보건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구입량이 2000년도가 '99년도보다 준 이유를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일본뇌염의 예방접종 지침과 방법이 '99년하고 2000년도가 변경되었습니다.

○**安載弘委員** 어떻게 변경되었습니까?

○**保健指導課長 金相駿** '99년까지는 기초접종을 3회 하고 추가접종을 2년마다 6번을 해 가지고 전부 9번을 주사를 놓던 것을 2000년도부터는 기초접종을 3회 하고 추가접종을 만 6세 때하고 12세 때 2번만 맞으면 되는 것으로 그것이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소요량이 줄었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렇게 많이 50% 이상이 줄어요?

○**保健指導課長 金相駿** 4회가 줄었습니다. 일본 뇌염이 기초 영유아 접종식으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대폭 줄었습니다. 그전에는 2년마다 1번씩 추가접종을 꼭 하던 것을 이제는 평생에 2번만 추가접종을 하면 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安載弘委員** 그거야 과장이 더 잘 알 것이고 아무튼 보건소 의약과장께서는 상이한 내용을 추가로 답변해 주시고 아까 정수조정에 대해서 내부결재를 받은 게 있다고 하셨으니까 내부결재 받으신 걸 제출해 주시고 일단 그 자료가 올 때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安載弘委員!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李東奎委員! 질의하십시오.

○**李東奎委員** 李東奎委員입니다. 보건소 우리 직원들이 정신들을 좀 차리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 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방역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다가 파리, 모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종로구에 늘어나고 있는 실태라는 차원에서 방역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처음에 제안설명을 하셨던 자료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건소 것을 보면 11쪽에 정신보건사업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총 사업비 8,400만원이라는 게 뭐죠?

○**保健指導課長 金相駿** 그것이 84만원입니다.

○**李東奎委員** 그게 84만원입니까?

○**保健指導課長 金相駿** 예.

○**李東奎委員** 그렇습니까? 8,400만원으로 내가 봐 가지고 그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이나 과장님 중에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월 평

균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앰블런스가 몇 회 정도 가동됩니까? 대충 월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10회 정도 되는데 이 횟수는 저희가 우리 의료진 파견근무가 많이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파견근무? 어디로 파견 나갑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저희가 도심지이다 보니까 상당히 차출이 많아요.

○李東奎委員 주로 어느 곳에서 많이

○保健所長 李星世 종묘쪽

○李東奎委員 그러면 저소득층 상대입니까? 노인층 상대입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저희가 저소득을 상대하는 것은 앰블런스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 의료 봉고차가 있어 가지고

○李東奎委員 그러면 종묘 같은 곳에서 요청하는 이유가 됩니까? 데모?

○保健所長 李星世 예, 도심지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것이 많고요.

○李東奎委員 그러면 그 협조요청을 어디서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경찰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李東奎委員 경찰서에서 그렇게 많이 합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하여간 도심지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요구가 많이 들어와요.

○李東奎委員 그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保健所長 李星世 우선 우리가 의료동원은 주로 데모를 할 때 또 어떤 행사에 대비를 해서 부상자가 나올 것을 대비한 것

○李東奎委員 대비하는 것을 협조 요청 받는 부서가 어느 부서가 많으냐 그 얘기입니다.

○保健所長 李星世 그러니까 건축부분도 많고요.

○李東奎委員 개인적으로 보건소에서 판단해 가지고 내려보내는 경우도 있습니까? 자체 판단해 가지고

○保健所長 李星世 거의가 응급처치를 요하는 응급환자를 위해서도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물론 그럴 때도 있겠죠.

○保健所長 李星世 그런 분들을 이송할 때

○李東奎委員 관내에 있는 우리 주민들 응급환자를 수송할 때

○保健所長 李星世 저희 구청에서 어느

○李東奎委員 아니,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응급환자 이송을 요청할 때?

○保健所長 李星世 예, 요구할 때는 저희가 갑니다. 가서 환자이송을 하죠.

○李東奎委員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잘못하면 특혜성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保健所長 李星世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李東奎委員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왜, 지금은 워낙 잘되어 있어요. 119만 늘러도 오고 우리 감사담당관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혹시 그런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요구해서 나간 횟수가 대충 1년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누구 아시는 분 소장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保健所長 李星世 1달에 평균 3,4회는 될 겁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니까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특혜성을 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保健所長 李星世 그런데 그런 특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李東奎委員 있을 수는 없다?

○保健所長 李星世 저희는 우리 기사들이 일정하게 자기가 수행하는 임무에 업무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없다?

○保健所長 李星世 예, 그렇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런데 왜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로 전화를 해서, 어떻게 알게 됩니까?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연락을 하면

○保健所長 李星世 보건소에 이송체계가 되어 있고 구급차가 있는 것을 아는 분들이죠. 그래서 환자가 위급하니까 어느 병원으로 이송을 하겠다고 요구를 하게 되죠.

○李東奎委員 그렇다면 개인의 특혜성은 아니더라도 지역의 특혜성은 있다는 얘기죠.

○保健所長 李星世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李東奎委員 그러면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느 지역사람들입니까? 동부에 있는 사람이 신청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保健所長 李星世 아니요. 주로 취약한 지역에서 요구를 해요.

○李東奎委員 그럼 동부에서도 신청을 합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예.

○李東奎委員 그런 예가 있습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확실하게 있어요?

○保健所長 李星世 예, 그것을 의약부서에서는 잘 모르는데

○李東奎委員 그렇게 출동을 하면 그 사람 인적 사항이나 이런 걸 적어놓죠?

○保健指導課長 金相駿 그것은 없습니다.

○李東奎委員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해요?

○保健指導課長 金相駿 차량운행일지가 있기 때문에

○李東奎委員 그러면 차량운행일지가 예를 들어서 동부지역인 창신동으로 갔다 그러면 차량운행일지에 창신동으로 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신청해서 갔다는 얘기죠?

○保健所長 李星世 그렇죠.

○李東奎委員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차량운행일지를 저희가 살펴보니깐 그런 예는 극히 없습니다. 차량운행일지에는, 왜 그렇게 나와 있는지요. 답변하세요.

○保健所長 李星世 제가 알기로는

○李東奎委員 동부지역에 간 것은 다른 행사로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량운행일지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보

건소장이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응급환자가 발생해서 동부지역으로 창신동을 갔으면 창신동으로 기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월 3,4회 정도라고 하면 금방 우리 눈에 띄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자료를 뽑고 있어요. 이거 다 뽑았어요? 전경완씨. 오전에 시킨 건데 여태 안 뽑았어요? 자료에 보면 운행일지에 그렇게 나와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앞에서 하는 얘기하고 현 운행일지하고는 안 맞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이게 그런 이송체계보다는 아마

○保健指導課長 金相駿 보건지도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구민들이 119를 불러서 앰블런스를 요청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고

○李東奎委員 그렇죠? 그렇게 제대로 알고 답변을 하셔야죠. 차라리 과장보고 답변하시라고 하는 게 낫죠.

○保健指導課長 金相駿 가끔 치과 진료를 하거나 내과 진료를 하거나 그러다가 안 좋아하는 그런 상태에 그렇게 운행을 좀 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왜냐하면 자료가 모든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보니까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게 묻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자료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을 어떻게 집행했다는 것, 지적당한 사건이 '99년도에 몇 건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99년도 것을 모르시면 2000년도 것은 우리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으셨습니까? 금년도 것 감사를 받으셨어요?

○監査擔當官 金周會 올해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李東奎委員 아직 안 받았죠? '99년도 자료를 보시고 몇 건인지 말씀해주세요.

○監査擔當官 金周會 '99년도에 2건이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이 몇 가지입

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2명입니다.

○李東奎委員 인원수로 2명? 다른 것으로 지적된 사항은 없고, 그 2명에 대한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2건이 하나는 문화재 관리 실태 점검이 되었어야 되는데 소방시설을 함께 보수할 때 설계해야 되는데 아마 예산이 부족했는지 그것을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직원교육을 하고 다음번 예산 때 보완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감사원에 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풍속관련 업무를 감사할 때 사치성재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당초에 부과를 안했다가 사후 2년 이내인가 다시 거기에다 상그리에라고 하는 유흥업소 허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유흥업소를 내게 되면 중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가지고 1년 이내였습니다. 그것을 세무과에서 캐치를 하지 못해서 중과하라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중과를 했습니다. 310 만원을, 그래서 감사원에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처벌을 받았다는 거죠? 결과는 그렇게 결과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사후조치는 취득세는 추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묘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추후에 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하고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감사원 처분요구 집행사항이라는 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말이죠, 누구 직원 한 사람 이리로 보내주세요. 이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통보자 203명에 대하여 과태료, 이게 얼마라는 얘기에요? 이것은 뭐라고 읽어야 됩니까? 2,040만원. 그러면 과태료 2,040만원이 미부과된 것은 정수를 했어요? 안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監査擔當官 金周會 그것은 부과를 안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에서 징계가 올라갔는데 답변을 이

렇게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계도기간을 주지 않고 즉시 이것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많다, 감사원에서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좀 융통성을 부여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서울시 징계위원회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 결과 처벌하지 않고 불문경고로 처분을 완화해 가지고 종결 처리했습니다.

○李東奎委員 종결 처리했다구요? 어떻게 했어요?

○監査擔當官 金周會 그것은 담당직원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감사원에서 청구가 왔습니다. 왜 부과를 안했느냐, 그래서 부과를 안한 것은 첫째, 계도기간이 거의 없었고 그리고 단속내용을 보면 여기에다 담배나 라이터를 넣고 가는 사람만, 사용하지 않아도 주머니에 넣고 가도 10만원씩 부과를 했습니다. 너무 과잉단속을 한 것이 아니냐 해서 구청에서 내부방침으로 이것은 청장님한테 받았습시다. 이것은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는 면제방침으로 정했습니다.

○李東奎委員 면제? 뭐랄까 처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10만원, 30만원 정도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행정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한해서는 면제를 해주자

○李東奎委員 면제를 하면 완전히 봐준다는 거죠? 없었던 걸로

○監査擔當官 金周會 예,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시에 가서 소명을 했습니다. 담당과장이 소명하기를 이렇게 주민을 위하고 여러 가지 행정기관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잉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원에서 우리한테 처분한 것이

○李東奎委員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을 처리 결과를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닙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감사원하고 사전에 이것은

처리가 된 겁니다.

○李東奎委員 감사원하고도 사전 얘기가 되었습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그 쪽에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李東奎委員 감사원하고도 얘기가 되어서 감사원 지적사항도 그렇게 했다?

○監査擔當官 金周會 예, 그렇습니다.

○李東奎委員 그것은 어떻게 보면 봐주기 식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보여집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끝으로 질문은 없습니다. 보건소장님에게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 내용대로 모든 것은 답변은 구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모르시면 물어가지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왜냐하면 저희들은 혼동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자료하고 여러분들이 답변하시는 것하고 안 맞으면 상당히 혼동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가급적 모르시면 옆에 과장님한테 답변하시라고 하든가 물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질문에 핵심이 필요합니다. 자꾸 하다보면 변죽을 울리는 경우는 곤란하다구요.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安載弘委員! 질의하십시오.

○安載弘委員 감사담당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한 적이 있으시죠?

○監査擔當官 金周會 예,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사실 감사담당관은 우리 종로구의 자체 사정관으로서 종로구의 모든 행정에 대해서 정말 구청장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정말 구청장께서 목표하시는 각종의 행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사관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감사담당관의 위치는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 스스로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하시면서 혹시 팔각정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요?

○監査擔當官 金周會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습다. 저는 가지는 않습니다.

○安載弘委員 나가시지 않고, 그러면 팔각정에 가시면 혹시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팔각정에는 팔각정 하나하고, 그 다음에 휴게소 1, 2와 향토문화매점이 있는데 거기에 일반음식점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즉 일반음식점에서 술을 팔수 있고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팔각정 자체가 도시공원이 아닙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도시공원이죠? 도시공원 내에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까? 지금 술을 팔 수 있고 라이브쇼를 할 수 있는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있습니까? 도시공원 안의 시설물 중에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가 나갈 수 있는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監査擔當官 金周會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200㎡ 미만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넘어가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安載弘委員 어떤 면적이요? 공원의 면적이요? 건물의 면적이요?

○監査擔當官 金周會 시설물의 면적

○安載弘委員 아니죠. 잘못 알고 계시네요. 감사담당관실에 누구 알고 있는 분 없어요? 도시공원 안에서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은 전혀 없어요? 한 분도 없어요?

○監査擔當官 金周會 제가 알기로는, 상식으로는 건물이 200㎡ 미만은

○安載弘委員 잘못 알고 계시다니까. 도시공원 안에서 일반음식점 허가를 얻으려면 그 전체 도시공원의 면적이 적어도 10만㎡를 오버해야 되고 10만㎡가 안될 경우에는 일반음식점 허가를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팔각정에서는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서 술을 팔고 노래를 라이브쇼를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업을 하는데 적어도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감사담당관이 금년초에 하셨는데 그런 것을 적발을 하지 않

으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몰라서 못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알고도 묵인하셨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監査擔當官 金周會 지난번에는 시설 회계하고 그런 것만 중점으로 했기 때문에 운영상태에 직접 된 것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우리가 감사를 하려면 감사현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2000년도 시설관리공단 감사 계획표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짠 겁니다. 인사 및 조직 운영 상태에 대한 감사, 재무 및 회계 처리, 시설 관리, 청사 관리, 각종 재산 및 물품 관리 상태, 시설공사에 따른 계약내용이 감사의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시설관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현장에도 가보지 않고 보지도 않았다면 적어도 감사계획과 다른 감사를 했다는 그런 사실을 입증하는 건데 답변해주시죠.

○監査擔當官 金周會 시설 관리에 관해서는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安載弘委員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냐면 이래서 중요합니다.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운영규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정책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는데 '99년도 1월 25일날 시설관리공단에서 팔각정 입찰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사실이냐면 적어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혼자 전횡을 했다는 그런 사실을 입증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맞는 것 같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렇다면 시가 아닌 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공원시설에 대해서 입찰을 보기 위해서 적어도 이사회에 적어도 7일 전에 통보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그 내용을 확실히

○安載弘委員 그런데 왜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하

시면서 전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사하고 감사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분명히 감사목표에 조직의 운영실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팀에서 관리하는데 기획팀의 조직 운영실태를 파악하려면 적어도 기획팀이 하고 있는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담당관 답변을 들으면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감사보고서 내용도. 그렇다면 적어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독단적인 의사 결정행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은 방조했거나 묵인했다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나가서 감사를 한 것은 '98년도 설립되었을 때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처리한 업무만 봤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니까 '99년 12월까지의 기간을 감사를 했는데 '99년 1월 15일 재입찰을 했잖아요?

○監査擔當官 金周會 그것은 2000년도입니다.

○安載弘委員 '99년 1월 15일날 재입찰을 하고 2000년 1월 29일날 재입찰을 했잖아요? '98년 12월 23일날 첫번째 입찰을 하고 그 입찰이 무효라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99년 1월에 입찰을 받아서 남궁혜경이 낙찰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남궁혜경이가 그 일을 하다가 소위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2000년 1월 29일 재입찰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일련의 그러한 과정들이 적어도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이래 단 한번도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감사담당관의 생각에 의해서 감사규칙에 의한 감사를 실행했다면 적어도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왜 낙찰이 무효화되었고, 왜 '99년 1월에 또다시 입찰을 받아야 했으며, '99년 연말에는 왜 그 낙찰자가 적어도 그 대부로의 비쌌을 이유로 포기해야 했는가 그런 것을 다 조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예, 그때는 제가 생각하기

에는 이게 1월 19일날 그때 옛날에 입찰을 받아 가지고 1년 동안 운영한 내용은 감사를 못한 것 같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니까 감사라는 게 사정기관으로서 적어도 자율적으로 감사계획을 짜는 것이고 어떤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또다시 임시 감사계획을 짜가지고 감사를 실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누구의 외압이 있었습니까? 감사하지 말라는.

○監査擔當官 金周會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면 적어도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적어도 팔각정 운영과 관련해서, 낙찰과 관련해서, 관리와 관련해서 적어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독단적인 의견에 의해서 입찰을 받았다면, 그것을 인정하셨잖아요? 관리공단 이사장의 독단이었다고. 그렇다면 적어도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정기관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면 그 조직은 부패하게 됩니다.

○監査擔當官 金周會 예, 맞습니다.

○安載弘委員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관찰해야 될 것은 적어도 '98년 12월 입찰에서는 그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했어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99년도 1월에는 입찰유의서의 내용이 변경됩니다. 최초로 공원녹지과의 입찰유의서 내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면 됩니다. '99년도 입찰유의서에는 종로구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입니다. 이것은 「국가를상대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도 위배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원시설을 이관받고 입찰을 할 때 적어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계약사항에 관한 법률을 위배한 사실도 목인하실 겁니까? 답변을 좀 해보세요.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監査擔當官 金周會 예, 알겠습니다.

○安載弘委員 또 하나 '99년도 1월에 남궁혜경은 그것을 13억 1,100만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9년도 4월에 황숙자라는 사람이 사업자등

등록을 내고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安載弘委員 잘 몰라요? 진짜 몰라요?

○監査擔當官 金周會 누구인지

○安載弘委員 뭘 몰라요? 여기 보면 알지. 적어도 사업자등록증에 황숙자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그 사람이 황숙자라는 이름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게 황숙자가 팔각정을 하고 싶었는데 그 사람은 적어도 입찰유의서에 규정한 종로 거주 6개월 미만에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남궁혜경으로 하여금 입찰을 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남궁혜경이가 13억 1,100만원에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실제 운영자는 황숙자가 되었는데 그 증거는 뭐냐하면 환경위생과에서 '99년 4월에 영업허가증을 내준 영업허가증에 나와있고, '99년 4월에 광화문세무서에서, 지금은 종로세무서죠, 영업허가증에 황숙자로 나와있습니다. 모르십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그것은 계약인 것은 알았는데 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安載弘委員 종로구 시설관리공단과 낙찰자가 계약을 할 때 관리계약서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그 본인의 이름으로 그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독단으로 말이죠 낙찰자와 관리자가 틀린데도 인정을 해줬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가면 환경위생과도 역시 공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입찰유의서에 분명히 낙찰자와 관리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것은 관리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황숙자는 '99년 12월에 그 시설을 운영을 해줍니다. 13억씩 주고. 1년에 얼마죠? 13억을 5로 나누면 1년에 얼마입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황숙자는 이제는 못하겠다고 포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2000년 1월 29일 재입찰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입찰을 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입찰을 보느냐면 주차장을 포함해서 12억 6,370만원에 황숙자 앞으로 낙찰이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적어도 2000년도 초에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1년에 예산을 얼마나 쓰시는지 아세요?

○監査擔當官 金周會 개략 48억 정도

○安載弘委員 48억을 쓰죠? 그렇다면 종로구 전체 예산에 적어도 10%는 안돼도, 10%가 뭐야, 48억이면 좌우지간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감사를 안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적어도 감사담당관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생각되는데 감사담당관이 잘못했으면 그것은 누가 감사를 하죠?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직이 1,400 이상이 되는 조직은 잘못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그러한 잘못을 적어도 감사담당관이 적발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적법한 조치를 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 조직은 썩어요. 감사담당관이 소급의 역할을 제대로 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게 해주고 직원들이 관련법령이나 또는 업무처리 내규를 잘 몰라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감사담당관 소속실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그것을 고치게 하고 개량하게 하고 정말 그 조직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말씀하게 도려내서 그 조직이 생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金周會 課長의 직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질문을 드려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독단에 대해서 알고 있으세요. 그런데 방조했다는 것은 스스로 직무를 유기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직무유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글썬, 감사를 할 때 몇 가지 보도록 했으면 좋았는데 아마 짧은 기간에 9일 동안에 회계감사를 처음 공단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감사가 대충 저회 감사과에서 한 게 회계감사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다보니까 그 분야까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니까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을 시인하십니까? 직무유기가 한글사전에 의하면 뭐라고 나와있나, 잘못하셨습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예, 그것까지도 다 봐야 되는데

○安載弘委員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밝힌 사실에 대해서 차후에 감사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예, 신중하게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安載弘委員 검토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가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적어도 종로구 세입에 약 5억원 내지 6억원이라는 손실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억이나 6억은 적어도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1년 예산의 13%, 14%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손해를 끼쳤고, 둘째로는 일반음식점 영업허가가 날 수가 없는데 허가가 날 수 있게 방조를 했고, 세번째는 입찰유의서에 보면 예정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적어도 예정가격 미만으로 낙찰이 된 경우에는 그 낙찰이 유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효입니다. 그런데 '99년도 1월에 낙찰된 것은 13억이었어요. 2000년 1월의 낙찰은 12억 6,370만원인데 주차장이 포함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9년 4월 1일부터 12월까지의 주차장 수입이 얼마였느냐면 물론 그 당시에는 주차요금이 비쌌다고 합니다마는 2억 1,0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차후로 발생할 주차장 관련 수입은 5년간 무려 15억 이상이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낙찰가가 5년간 3억 5,000만원인가 3억 7,500만원인가 계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낙찰을 받았습시다. 따라서 구 재정 운영에 엄청난 손실을 끼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당장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글썬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조사를 해보아야지 지금 그 사항만 가지고는 답변을 드리기가

○安載弘委員 두 가지만 답변을 하세요. 감사를 하실 것인지 만약에 어마어마한 잘못된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지 않겠다고 감사담당관은 스스로 직분을 포기하는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예, 돌아가서 회의가 끝나면 가서 감사를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내용이 문

제인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가급적이면 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아니, 내 얘기가 거짓말 같습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제가 거짓말은 아닌데요 제가 구체적인 것을

○安載弘委員 감사담당관이라는 것은 감사규칙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그 사안의 중대성이나 중요한 사실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감사를 해야지 왜 감사를 안한다고 해요? 해보야 되겠다고, 연구해보야 되겠다는 옳지 않죠. 지금이라도 당장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공원법에 위배되었고, 또 적어도 재정적인 손실을 끼쳤고, 또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일을 관리공단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는데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당장 조사를 해보야 되지 않겠습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예,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安載弘委員 조사계획을 짜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담당관의 역할은 그렇습니다. 사실 의원들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조직이든지 감사담당관이 있음으로써 그 자체 사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 그 조직이 생기가 돌고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계획을 세워서 가지고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시정하실 것은 시정을 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劉燦鍾委員! 질의하십시오.

○劉燦鍾委員 劉燦鍾委員입니다. 행정사무감사중에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위원장님 승낙도 없이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자리에 돌아오시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30分 會議中止)

(15時40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憲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아까 劉燦鍾委員님! 질의하시기로 되어 있죠?

○劉燦鍾委員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신다고 중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질의부분에 있어서는 자율성을 갖고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憲九 질의하실 위원은 사전에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전부 안 하신다고 했고 중복되지 않은 질문을 하도록 제한을 하는 것뿐입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劉燦鍾委員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부드러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간 게놈(Genome)에 대해서 인류가 모든 DNA를 분석해서 가장 놀라운 생명공학의 발전이라는 아주 희망에 부풀 기사가 나왔던군요. 이와 관련해서 모든 질병이 치유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보건행정과의 약계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李星世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유전인자 게놈프로젝트(Genome Project)를 가지고 상당히 세계적으로 연구과정에서 생명체가 앞으로 어떤 질병이 있기 이전에 그런 유전인자를 발견해서 미리 예방조치해서 생명공학적인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상당히 우리 보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이바지할 것이다, 지금 어제인가 그제 보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게놈프로젝트(Genome Project)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대국적으로 그것을 발표했더군요. 저희 나라도 연구단계에 이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행정도 성인병이나 질병이 발생되기 이전에 예방을 하는 그런 예방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보면서 저희가 이런 것을 업그레이드해서 생명체에 예방 쪽으로 더 이전에 가서 유전인자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劉燦鍾委員 약계는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그래서 유전인자의 아주 복잡한 DNA합성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서 생명의 연장과 어떤 젊음을 더 유지하는 쪽으로 건강한 생명이 더 오랫동안 사는 평균수명도 늘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도 해봅니다.

○劉燦鍾委員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劉燦鍾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어요?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安載弘委員! 질의하십시오.

○安載弘委員 安載弘委員입니다. 아까 감사담당관 답변 중에서 북악팔각정 시설물 관리위탁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셨죠?

○監査擔當官 金周會 예, 완벽하게는 몰랐습니다. 개략적인 사항만 들었습니다.

○安載弘委員 관리위탁사항이나 또는 삼청테니스장이나 기타 종로구 위탁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셨죠?

○監査擔當官 金周會 대략적인 것은 알았는데 여기서 답변드릴 정도는 몰랐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니까 이제는 아셨잖아요. 잘못된 게 많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예, 지금 하여튼 제가

○安載弘委員 그렇다면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답변드리기가

○安載弘委員 그러면 감사담당관의 직속상관이 부구청장 맞습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예.

○委員長 李憲九 위원장님께 부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 후에 부구청장을 상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지금 安載弘委員님께서 질문과정에서 盧張鐸 副區廳長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은 盧張鐸 副區廳長을 이 감사 자리에 정식으로 출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49分 會議中止)

(15時55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憲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님! 감사담당관에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할 것인지 물어서 하겠다면 盧張鐸 副區廳長의 출석요구를 철회할 용의가 있습니까?

○安載弘委員 사실 副區廳長이 출석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委員長 李憲九 그렇습니다.

○安載弘委員 廳長님은 어차피 정치적인 보직이고 행정의 실질적인 총책임은 盧張鐸 副區廳長이 지고 있다고 본다면 적어도 오늘 이 보건소와 감사담당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盧張鐸 副區廳長이 출석해서 담당과장이 업무보고 하는 것을 듣고 위원들하고 인사라도 하고 나갔으면 제가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행정의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청장님을 제외한 盧張鐸 副區廳長이 직속하부기관인 감사담당관 감사에 물론 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안 했는지 모르지만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이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못한 기본적인 이유는 감사담당관이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답변은 적어도 부구청장이 해야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출석을 요구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위원으로서 공적인 업무에 임했을 때의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꼭 그분이 출석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하겠다고 확정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출석을 안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監査擔當官! 답변하시죠.

○監査擔當官 金周會 예, 내용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이 문제는 盧張鐸 副區廳長님과 상의를 하셔서 가지고 반드시 감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安載弘委員께서 盧張鐸 副區廳長을 이 자리에 출석시키자고 한 의도는 다분히 우리 종로구의 구정발전을 위한 충정이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監査擔當官 金周會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李東奎委員! 질의하십시오.

○李東奎委員 李東奎委員입니다. 우리 監査擔當官님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때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安載弘委員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가 적절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설명해주신 바도 있지만 사실 혼자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까? 그것이.

○監査擔當官 金周會 제가 하도록 건의를 충분히 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아니, 그러니까 혼자 결정할 사안이 아니냐고요.

○監査擔當官 金周會 감사는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최소한도 부구청장님 결재 이상입니다.

○李東奎委員 그런데 어떻게 답변을 하셨어요?

○監査擔當官 金周會 제가 건의 드려서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입니다.

○李東奎委員 그 건의란 말은 지금 한 말이고

○監査擔當官 金周會 아니요.

○李東奎委員 하겠다고 지금 속기록에 올라와 있다는 말이에요. 하겠다고?

○監査擔當官 金周會 예, 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럼 결과적으로 부구청장을 무시하고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監査擔當官 金周會 그것은 아니고요.

○李東奎委員 직속상관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監査擔當官 金周會 그런 것은 아니고요.

○李東奎委員 하시겠어요?

○監査擔當官 金周會 제가 하실 수 있도록 설득

을 드려서 일을 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보건소장님 하고 감사담당관님에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많은 자료가 저희들한테 있어서 할 것은 많습시다라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깊이 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달라져야 합니다. 자! 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토론의 문화가 제대로 정착이 되어야 되고 그 속에서 꽃을 피울 수 있고 새로운 품질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보건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전혀 대화 없는 것 같아요. 업무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큰 굴레에서 바라봅니다. 저희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한테 질의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큰 굴레에서 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우물 안의 개구리입니다. 작은 굴레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시각 차이가 많이 발생되고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답변하시는 부분에서 불충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라는 생각과 종로구 전체를 바라본다는 시각에서 나갔을 때는 이것이 됩니다. 같이 맞아들어 갑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평소에 얘기 하시잖아요. 양 수레바퀴, 양 수레바퀴의 의미가 됩니까? 바로 여러분들하고 저희들인데 이 양 수레바퀴가 나가려면 첫째, 여러분들이 그런 시각에서 봐줘야 되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토론문화가 제대로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각 부서별로, 그러면 국·과장님들이 토론해 주시고 또 과장님들은 계장님들을 모시고 또 밑의 직원들하고 토론해줘야 됩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난 사항은 다음 단계에서 여과를 거쳐서 토론해 주고 이렇게 해서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 총괄표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어오는 이런 현상은 없어진다고 봅니다. 이제 달라집시다. 달라질 수 있습니까? 달라져 보시겠습니까? 保健所長님! 노력하시겠습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에, 노력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監査擔當官님! 노력해 주시겠어요?

○監査擔當官 金周會 에, 노력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분의 달라진 모습이 안 보였을 때는 저희도 역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다른 위원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늘의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현재 이 시간까지 자리를 해주신 위원님들!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청사 내에 계시면서도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는 위원님들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저도 이제 임기가 앞으로 며칠 남지 않았습시다마는 그 동안 위원님들의 모든 문제를 존경하는 의미에서 많은 자리를 했습니다마는 다음에 인수받는 상임위원장한테 이런 것이 계속 넘어가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회의에 임하는 한 충실한 질의 답변을 해서 심도 있는 그런 의회상을 우리가 올려야 되겠습니다. 정말 오늘 심도 있는 질의 고맙습니다. 이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실시 결과에 따른 강평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02分 會議中止)

(16時16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憲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감사실시 부서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부터 오

늘까지 3일간 실시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략히 평가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많은 준비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감사자료 제출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신 행정관리국장님, 생활복지국장님, 보건소장님 그리고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한된 짧은 감사일정 속에서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구민의 대표자로서 동분서주 노력하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주민을 대표해서 구정 전반에 관하여 모든 운영상태를 파악함으로써 종로구의 살림을 도맡아 운영하고 있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이 구민의 혈세인 예산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적법하고 타당하게 집행하였는지 여부와 구정의 추진방향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올바르게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매우 중요한 계기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그 동안 행정수행에 있어 시행착오나 잘못된 점은 없는지 돌이켜 보고 반성하며 잘못된 점은 과감히 시정하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보다 나은 구정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감사를 실시한 결과 우선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민원 택배제도를 도입, 신청민원을 저렴한 비용으로 직접 배달해 주는 등 주민 편의 위주 행정을 시행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정보은행 운영으로 구인과 구직을 알선함으로써 주민의 취업 알선에 일조한 점 그리고 열악한 여건 하에서도 청소행정 분야에 대한 서울시 평가에서 3위를 한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소 아쉬웠던 점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감사자료의 제출

이 너무 불성실하다는 점입니다. 일부 자료는 통계수치가 틀리는가 하면 추가자료를 요구할 경우 제때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감사에 지장을 초래한 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방위훈련제의 또는 면제자 처리 부적정 등 매년 지적된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 지적된 점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닌가 생각되어 심히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국별로 미흡하거나 시정되어야 할 사항 중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옛 지명인 '쇠북 鐘'자의 사용이 구 자체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타 지역에서나 법적으로는 아직도 '술잔 鍾'자로 표기하고 있으므로 법적인 정비와 아울러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등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주변에 건축 허가시 문화재 양각심의 등 건축심의 제도가 폐지되어 문화재 훼손이 많으므로 문화재 심의 제도를 부활하여 주도록 상부에 건의하고 건축과와 협의를 하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 심의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심의하여 문화재 보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송인1동에 설치한 종로문화의 집 안내 표지판이 도로변에 조잡하게 설치되어 제 구실을 못하므로 시정하기 바라며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동에도 취미교실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는데도 예산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조속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고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는 동에도 예산 배정이 이루어진 것은 잘못된 것으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장 구조조정을 철저히 이행한 동이 있는 반면 전혀 이행하지 않는 동도 상당수 있으므로 인구가 적은 통의 통폐합과 60세 이상 고령 통장 중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통장의 교체 등 통장 구조조정을 철저히 하여 예산절감 및 통장제도의 효율적 운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민방위훈련 불참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시정하기 바라며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수령

하지 않는 주민이 상당수 있어 보관상의 문제점 등이 있으므로 구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임에도 '99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을 보면 지방채이자 2억원, 종로문화원 건물 개·보수비 3,600만원 등으로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예비비의 지출목적이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예비비 집행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각 동별로 동 소규모사업을 시행할 곳이 상당히 많은 데도 상반기가 끝나는 현 시점까지 대부분 집행하지 않은 것은 동장들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므로 조속히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민회관 건립후 주변이 상당히 어두워져 주민 통행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범지대화 되고 있으니 보안등 설치 등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에 있어 수의계약 비중이 너무 높고 1건당 금액에 따라 전결권자가 지정되어 있음에도 구청사 외벽공사 등을 시행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처리한 사례가 있는 바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구 예산으로 배부되는 대한 매일신문의 배달사고가 약 15%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배달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보안등은 1개당 설치비가 7만 4,100원인데 연간 관리비가 개당 3만 7,000원 정도이고 구 전체적으로 보안등 수리비만 1억 2,000여 만원이 소요되므로 설치와 관리를 일원화하는 등 효율적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인교통비 미수령자가 상당히 많은데도 수령을 독려한 근거가 없으므로 선의의 미수령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면으로 독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설 경로당이 인구에 비해 너무 많은 지역은 과감히 정비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조치하시고 많은 예산을 들여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형식적으로 시간만 채우는 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지양하고 구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라며, 쓰레기 적환장에 새벽 시간대 작업으로 주민의 취침 방해는 물론 악취 발생으로 주민불편이 막대하므로 작업시간대 조정과 주변정비를 철저히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수요자에게 부당한 비용을 전가하여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체에 치명적인 폐수 배출업체에 대한 단속실적은 저조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위생업소 단속실적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단속업무의 형평성과 취지에 어긋난다 할 것이므로 이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포천에 위치한 은혜·문혜 장애인 요양원은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소재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우유 배달은 매일 배달함으로써 신상에 이상이 없는지 파악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도, 2~3일 만에 배달하고 있는 것은 시행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시정하기 바라며, 인사동은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임에도 공중화장실이 없어 많은 불편을 초래하므로 주변 화장실을 개방토록 행정지도를 하시기 바라며 또한, 화장실 표지를 곳곳에 설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실적이 동별로 많은 차이가 나는데 동별로 수집목표를 할당하는 등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수질검사 의뢰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의 회신 공문에 관인이나 관인생략도 표기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이를 접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은 공문서의 효력에 의문이 있다 할 것이므로 공문서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밀도 주거지역에도 도시가스 설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무공급 규정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여 보급률 확대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60세 이상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제약이 많아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방역소독 실적이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앞으로는 지역별로 형평에 맞게 실시하여 전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에 대한 효과가 별로 없고 인체에 해롭다면, 연막소독에 대한 효과 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계속 실시 여부를 조기에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부지역에도 보건분소를 조기에 설치하여 중부지역 주민도 보건진료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입니다. 상대방 있는 주민 진정이 접수되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진정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상대방에게도 알려주는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공원녹지분야 식목에 따른 감사를 철저히 하여 식목 후 하자 보수 등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등 몇 년째 개최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위원회는 그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통폐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 바라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도 의사결정시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이사가 단독적으로 결정한 점, 10만㎡ 미만 도시공원지역에는 일반음식점 허가가 불가능함에도 팔각정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허가된 점, 팔각정의 최초 입찰과 낙찰 포기, 재입찰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데도 이를 지적하지 못했는 바 재감사를 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월 30일 내일은 본 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으로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오후 1시까지 시설관리공단 감사장으로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1시에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운영위원회실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중 구청의 각 부서에 대한 강평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時32分 監査終了)

○出席委員 9人

李憲九 安載弘 鄭泰淳 千相旭  
劉燦鍾 朴鍾植 洪起瑞 李東奎  
金正大

○出席專門委員

姜光日

○出席關係公務員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保健所長 李星世  
監査擔當官 金周會  
總務課長 李東明  
企劃豫算課長 林啞宅  
民願奉仕課長 林星圭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旅券課長 任炯正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保健行政課長 李鐘珏  
保健指導課長 金相駿  
醫藥課長 丁基聲

